朝鮮日報
夕刊 五日(水)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所 朝鮮日報社

鉱石分析 鉱業手續 重石 水鉛 買入
京城府太平通一丁目一七三 (朝鮮日報社前バス停留場前)
東信鑛業社 電光③2593番

陽新南昌間最要衝 箬溪를完全占領

武漢德安間連絡遮斷

【箬溪北方高地에서五日午前五時發同盟】我進擊部隊는 突然陽新南昌間의 中間에至하는 要衝箬溪前面에 出現하야 四日午後以來 猛攻에猛攻을 거듭한結果 五日午前二時를지나 마침내敵堅陣을 突破하고 箬溪를完全히 占領하야 漢口德安間의 陸路連絡線을 切斷하엿다 箬溪는 德安의南方約四十粁에當하는 軍事要地로 支那軍은此地에 大兵을配置하고 極力防衛에 努力하고잇든바 我猛攻에屈하야 그西南方武寧一帶에 脅威를밧게되엿다

【箬溪北方高地에서五日同盟特派員發】四日夕陽羅盤山東側 高地方面으로부터 進擊한 吉田勝部隊는 途中壯烈한 夜間戰鬪를交하면서 箬溪에肉迫、五日午前二時十五分前面數重의 防禦陣을 突破하고 마츰내市街에突入 一時間에亘한 市街戰後 頑强히抵抗하는敵을掃蕩하고 午前三時十分 完全히占領하엿다 萬歲聲은 修水河畔에 우렁차며 劍光은 煌煌한月光에빗나 壯絶을 極하엿다

【南京五日發同盟】中支軍五日午後七時卅分發表 九月十六日 瑞昌附近에서 攻擊을 開始한 我部隊는 江南의 大縱主陣地의 中央을 突破하기 十五里餘 十月二日 箬溪北方一帶의 堅壘를 攻略하고 五日未明 一部로써 마침내 箬溪를 占領하엿다 箬溪는 南은 武寧을 經由하야 長沙에 通하고 東은 德安을 經由하야 九江에 或은 永修를 經由하야 南昌에 通하는 戰略上의要衝이다 이 關係로 德安及瑞昌方面의 敵은 마침내 武漢方面과 連絡을 遮斷當하게될 危局에陷하엿다

【箬溪北方高地五日發同盟】植木、谷、吉田、山內等 各部隊의 一齊突擊으로 箬溪一戰에敗한 敵軍數個師는 約十日間 激戰에或은戰死 或은 負傷하야 戰鬪力의太半을喪失、支離滅裂하야 東方及西方으로 退却하엿다

壯烈한山岳戰反復

肉彈으로敵陣突破

【箬溪北方高地에서五日同盟特派員發】去十六日瑞昌으로부터 武寧街道에 向하야 突然攻擊前進을 開始한 我新銳○○部隊는 極히優勢한 敵에對하야 終始果敢한 戰鬪를하면서 急進又急進 嶮峻한山嶮의 敵陣을突破하고 五日마침내 敵의重要據點 箬溪를 完全히占領하엿다 이에依하야 德安으로부터 蜿蜒한敵의大抵抗線及連絡線은 完全히切斷되엿다 瑞昌西南方의 重疊한山岳은 天嶮의要害로 敵은 이天嶮을利用하야 山이라는山 峰이라는峰에 全部陣地를 構築하고 第一線이 破하면 第二線이 이에이어 應하려고 十重二十重의 堅陣에 據하야 極히 頑强히 抵抗하엿슴으로 我軍의苦戰은 筆舌難盡한바가 잇섯든바 必勝의 念에 불타는 我軍은 馬匹도 不通하는 山嶮을 大砲를 分解하야 지고 懸崖를 前進하야 十六日 敵의 第一據點 大嶺山의 線을 奪取하고 怒濤와 如한 勢로써 西南進하야 馮家舖 橫港舖等 敵의 重要據點을 次次로 奪取하고 이어 橫港舖로부터 大屋、田村에 至하는 連續五十里의 大隘路線에 至하자 絶對不利의 地形을 克服하면서 激戰을 演出 文字그대로 不眠不休하고 糧食이 欠乏하면 겨우 里芋와 옥수수로 饑를免하고 彈藥이 欠乏하면 銃劍과 肉彈으로써 代用하야 二十五日 드디어 隘路의 强行突破에 成功하야 一齊히 敗敵을急追 平地戰 山岳戰을 反復하면서 南下 十月五日 箬溪에感激의 日章旗를飄揚시켯다 이사이我掌中에歸한 山岳陣地는 數百에 達하고 敵의戰傷死는 枚擧에틈이 업는 大打擊을주어 敵을隨所에 擊攘 敗走시키고絶大한戰果를거두엇다

廣部廣中佐 名譽의戰死

【箬溪北方高地五日發同盟】我箬溪進擊部隊의 敵堅壘 白水街攻略戰에 際하야 廣部中佐는 九月二十六日 箬溪平野를 一望之下에 바라보는 敵第一線陣地인 麒麟峰의頑敵을 驅逐하야 이를 占領하고 이어敗敵을 追擊하야 奮戰中 怨痛하게도 腹部에一彈을마저 麒麟峰에서 死亡하엿다 廣部中佐(千葉縣出身)는 北京廣安門事件의 勇士로서 聲望이 놉핫스며 溫厚篤實하야 部下의 信賴를 一身에集中하고 잇든武人이엿다 武寧街道의 山岳戰에서 말이前進키어려운 峻嶮한斷崖를 지나前進 隘路一帶의平野에 屹立한峨峨한 山岳을 征服하야 長隘路戰成功의 端緖를짓고 我의數倍에 達하는優勢한敵이 限死抵抗하는 東衛에切迫하야 陷落前에 護國魂이된것으로 그戰死는 非常히哀惜되는바이다

鉢卷山前面 小富士山等占領

【○○山上四日發同盟】德永、柴田、福井各部隊는 鉢卷山을占領하자 即時敗敵을追擊하야 前面高地(通稱小富士山)를 一擧에蹂躪、餘勢로써 無名高地를 힘드리지안코 一蹴한後 西北으로敵을追擊 黃龍山東北山麓敵右翼據點一文字山을午後三時二十五分에 占領하고 凱歌를올렷다 그리고 右追擊部隊에서 我方의果敢한小富士山奪取를 感知치못하고 그高地로南下하려는 敵約一個中隊와 同山에서 驅逐된敵大部隊는 香을갈에서衝突 收拾할수업는混亂에陷하엿다 我谷隊部隊는 이를目擊하자 곳猛烈한小銃機銃射擊을 퍼부어 그대로殲滅케하엿다

富水南方栗樹尖 頑敵을一掃

【排市四日發同盟】排市附近殘敵掃蕩中인 鹽田部隊는 午正에再次陵峰에잇는敵에挑戰 富水南方栗樹尖에據한頑敵을一掃 이를確保、對岸의敵陣地를 瞰制 意氣益益旺盛하다

隘口街東南方 敗走敵을追擊

【○○山上四日發同盟】福井德永各部隊가 占據한 鉢卷山은 隘口街로 通하는 隘路로東南方에 聳立한 興隆山麓의 第二線陣地에 當하는데 [illegible] 隘口街東南方에 向하야 敗走中으로 我軍은 即時 追擊中이다

適任者受諾拒否로 外相問題暗礁에

銓衡延期、當分間首相兼攝

【東京電話同盟】宇垣外拓相辭任後 于先 近衛首相兼攝으로써事務를 處理하고잇는바 漢口攻略直前에迫到하고 目下內外情勢는 外相의椅子를 何時까지든 兼任으로둘수는업는形便이며 또 近衛首相의健康도 이를不許하므로 急速히 專任外相을決定할方針을定하고 三日 五相會議에서 近衛首相으로부터 右方針을說明 諒解를求한다음 外相의 人選에關하야 意見을求하엿든바 各閣僚는 모두 首相에一任하는 旨를 述하엿스므로 近衛首相은 前부터 意中에定하고잇든 人物인 駐英大使重光葵、駐米大使齋藤博의兩氏에 各各內交涉을하엿든바 齋藤博氏는 健康을理由로 또重光大使에는 難色이 잇는때문에 兩者도內諾을엇지못하고 四日朝에이르러 兩氏는모두 到底히外相就任이 不可能한 事情이 判明하게되엇스므로 政府는 마침내이를 斷念하고 同日의 五相會議에서는 近衛首相으로부터 右經過를 報告한다음 다시他에適當한人物을 物色할것을 述하고 首相은 그대로 官邸에 남어서 風見書記官長과 協議한後 元外相 有田八郎氏를 招致하고 交涉을進行하려고 于先同氏와 親友가잇는 內閣參議 松井石根大將을 官邸에 招致하고 同大將으로하여금 堀內外務次官을訪問하고 外務省方面의 意向을打診시키는一方 有田氏는此際外相에 就任할 意向이 업슴을 明白히하게 되엿스므로 專任外相의 決定은 暗礁에 언치게되여 政府는 當分間依然首相兼任으로 進할것을 發表하엿다 以上과가티 專任外相問題는 適當한人物을 엇기까지 銓衡을延期하기로되엿다

聯盟側大恐慌

我完全絶緣決定에

【주네브四日發同盟】日本政府가 國際聯盟과 完全히 絶緣하기를 決定한데關하야 아직 聯盟에는 公式通牒이 來到하지 아니햇스나 日本의 恫喝政策의 表現이라고 보는一方 國際聯盟은 日本의協力을 엇도록 最大의努力을 다하엿슴에 不拘하고 日本이마침내 모든聯盟關係와의 絶緣을決定한것은 遺憾千萬으로 역이고잇다 委任統治領을 今後 如何히 處理할가하는 問題에 關하여서는豫測이 不能하고 勞働局方面에서는 日本이 社會政策의 分野에서 聯盟에 協力을持續하도록希望하고잇다

時事解說

整理師團

漢口陷落이目睫에 切迫되엿는데 蔣介石이가 오히려 非常히 强硬한 抗戰을 保持하고 [illegible] 西南地方을 根據로 長期抗戰으로 最後의勝利를 呼號하고 잇는 裏面에는 무엇보다도 蔣介石의 直系中央軍 四十個師가 잇는까닭이요 또 이 中央軍中에도 所謂 整理師團이라는것이 잇는까닭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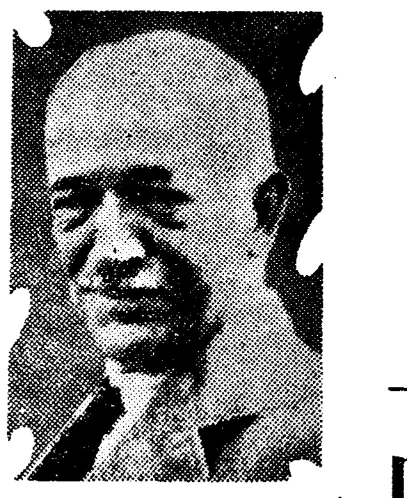
上海戰以來 中央軍은 部分的으로 打擊을 밧지아니한바가 아니지만 徐州會戰에서도 [illegible]

◇

[illegible]

슬로바키야民族도 체코에最後通牒

廿四時間期限附로



【伯林四日發同盟】DNB通信社가 各地方으로부터 어든情報라하야 傳하는바에 依하면 過般슬로바키아人을 代表하야 시로비內閣에 入閣한슬로바키아 人民黨체르내크無任所相은 三日베넷슈大統領에 對하야 二十四時間 期限의 最後通牒을 發送、슬로바키아人民黨要求가 容認되지안흘境遇에는 即時戰爭의强硬한 意思表示를 行하엿다고하는바 右通牒은 슬로바키아地方의自治를 要求한것이라고한다 그內容은 如左하다

一、슬로바키아 人獨立制를 承認할것
一、슬로바키아地方에서의 官用語는슬로바키아語만으로할것
一、슬로바키아地方에 슬로바키아人에 依하야 立法機關을 創設하고이에 外交財政軍事를除한 全權을賦與할것
一、슬로바키아地方에잇서서의 行政權을 即時 슬로바키아人代表에게 委讓할것 (寫眞은 베넷슈大統領)

閣內異分子整理次 체코內閣于先總辭職

【프라하四日發同盟】체코未曾有의 難局에 際하야 지난 九月廿日成立한 시로뷔內閣은 四日一旦總辭職을 敢行 內閣의異分子를 整理하고 新內閣組織에 着手하기로되엿다 累報四國協定의受諾으로 주데텐을喪失한後 [illegible] 슬로바키아人의 獨立要求와 [illegible] 波蘭、匈牙利兩民族 [illegible] 首相은 마침내 內閣再統一必要에 直面하게되엿다 新內閣은 專히技術的經濟的專門家로써 組織될模樣이다 外相에는 現駐伊公使치발코프스키博士가 就任할模樣이다

獨國防軍

第三地區各地接受

【伯林四日發同盟】주데텐獨逸人의熱狂的歡迎裡에 新獨逸領各地를視察中인 히틀러總統은 獨逸軍의進駐를 기다려 四日午後칼스바-드에 入하엿다 히틀러總統은 沿道에堵列한 儀仗兵及數萬의市民의歡呼를 바드면서 歡迎會場인 칼스바-드劇場에到着하야 주데텐獨逸人 代表者의 公式歡迎을바든뒤 발코니에出現하야 廣場에蝟集한 多數市民을 向하야 一場의演說을 試하고 주데텐地方經濟建設計劃을 發表하야 市民의歡呼에 答하엿다 一方獨逸軍은 四國協定에基하야 陸軍次官라이헤나우將軍指揮下에 四日朝부터 第三地區에 進駐를開始하고 아이겐볼크、호-헤、칼스바-드等各地를接收하엿다

【칼스바-드四日發同盟】一日以降四國協定의決定에依하야 繼續進駐하고잇는 주데텐獨逸地方에 獨逸軍隊는 三日까지에 第一、第二地域의占領을 完了하고 이어二日午前부터 第三地區에의進駐를開始하야 四日午後에는西部國境의칼스바-드에進駐、주데텐獨逸市民의 感激한出迎裡에 隊伍堂堂히入市하엿다

張鼓峰敗戰理由로

블元帥失脚說有力

當地에 達한 情報에 依하면 極東赤軍의機密을漏泄한 류시코프大將의 逃亡과 赤軍戰鬪力의欠陷을 遺憾업시 暴露한 張鼓峰事件과는 마침내 極東赤軍으로하여금 大編成 變更을하지안흘수 업게하고 이에伴하야 블류헬元帥의 消息에關하여서도 重大한 疑惑이 益益濃厚하게되엇다 同改編에는 蘇聯國防長官메크리스大將이 手腕을 發揮한模樣으로 突然張鼓峰事件 敗戰原因調査委員長으로서 極東에 出張한그대로 今日에이르기까지 極東에잇고 去月二十二日부터二十五日까지 하바롭스크에서 開催된 第二次獨立赤軍 第一回大會及去二十六日 블라지보스톡市에서 開催된 第一獨立赤軍黨大會에도 出席한 一方 블류헬元帥의 消息에 關하여서는 張鼓峰事件當時 和戰 어느便으로 되든지 同元帥가 苦境에立할것은 當然한事實로 보이고 이스이만큼注目되고잇든바 今回 黨大會에서 그名譽會員에 스탈린、데미트로프(第三國際書記長) 몰로토프(第三國際共黨獨逸代表) 毛澤東(同支那代表)外 四名이 推薦되엿슴에不拘하고 블류헬의 名이보이지안코 또最近의 新聞紙上에도 全然그形跡을 沒하고잇는點 及沿海州第一軍司令官으로 트라스將軍이 第一獨立赤軍司令官에 轉任될豫定이던것이 슈테른大將이 이에代身된것은 張鼓峰事件의 敗戰의責을負하야 馘首된것인바 이와가튼點으로보아서는 블류헬元帥가 責任을 追及當하고잇는것은 確實하다고보이며 그失脚說은 有力化하고잇다 但極東의 諸官公衙及莫斯科의 트레차코프美術館其他로부터 同元帥의 肖像畫가 아즉撤去되지안흔事實로보아 同元帥는아직生存하고잇지안나하야 一縷의希望을두게된다

"英佛兩國의屈服이 國際政治를覆滅"

蘇聯紙猛烈히攻擊

【莫斯科四日發同盟】蘇聯政府는 체코問題發生以來 極히 消極的으로敗하고잇는바 共產黨機關紙프라우다紙는 四日紙上에서 社說을 揭載、체코問題解決에關하야 蘇聯과 英佛間에 事前에 諒解가잇섯다는說을反駁、英佛兩國을 攻擊하야 如左히論하고잇다 "英佛首相의 나폴레옹的皇帝訪問에 比較할것이나 事實은 다르다 히틀러、뭇솔리니의 侵略的主張에對하야 英佛政府의 屈服한것이다 이는 全部그要求를容認 英佛兩國이 압서保障을與한 체코國境에對하야 分割承認을與한것은 兩國의威信을傷한것이며 巴里의 U・P電報及프라하의新聞은 蘇聯은 今回問題로 英佛과 諒解가잇다고流布하고잇스나 그러한일은 明瞭히 英佛側이며 彼等은 自國의面目을 收拾하고저 이가튼報道를流布하려는것이다 蘇聯邦은 리트비노프 外務人民委員演說로明白한바와가티 條約上義務를履行할것을 言明하엿다 至今에小協商國의 運命한 擁護者는 蘇聯뿐인것이 明瞭하게되엿다 英佛兩國의 侵略者에對한屈服이 我等國際政治支配力을 根本的으로 覆滅하고 小國은今後도 不安을 免치못할것이다"

佛下院、壓倒的으로 外交政策을承認

【巴里四日發同盟】佛國下院은四日午後三時十分부터開會 先次달라디에首相으로부터 外交政策에關한 政府聲明의 朗讀이잇슨後 各議員間에 活潑한討論이잇슨다음 採決의結果 結局賛成五百三十五、反對七十五、棄權二의壓倒的多數로써政府의外交政策을承認하기로決定하고 午後七時二十五分休憩에入하엿다

四國協定成立에 伊佛外交平常化?

【羅馬四日發同盟】뭉헨四國協定成立에伴하야 暫間停頓狀態에陷하엿든 伊佛關係로 急速한展開를示할것으로 豫想되는데 四日伊太利政府側에의 情報에依하면 佛政府는 四日의國務會議에서 伊太利와의 正常外交關係回復方針을 決定하고 駐佛伊太利大使부로나스氏를 通하야 佛國의 意向을羅馬에 通達하도록 要請하엿다고 傳한다 即佛國政府는 伊太利의 에티오피아倂合을 承認하고 近近伊太利國王及 에티오피아皇帝 에마누엘三世에 呈하는 信任狀을携行할新大使를 任命하리라고 觀測된다

佛、上下兩院에 四國會談經過報告

【巴里四日發同盟】佛國臨時議會는 四日午後三時十分부터 開會 달라디에首相은 下院에서 쇼탕無任所相은 上院에서 各各聲明을 朗讀하야 이르기까지의 四國協定 成立에 關한政府의 外交經過에 聲明은 주데텐問題發端의 經過를 詳述한後英佛兩國의 親善强調의 必要를力說하고 佛國의平和政策에 言及하야 我等은 佛國의 正義觀及 平和에對한 忠誠을 자랑으로역인다 今回의難局에際하야 佛國은 平和交涉을 行하면서도 國力을 宣揚하엿다 그러케한 때문에 戰爭을 回避할수잇섯다 獨伊兩國과 佛國과의政治觀念은 相違하나 平和要求는 同一하다 平和에對한 世界의 善意를糾合하는것이 肝要한일이다 라고述하고 最後에 祖國佛蘭西의 平和方針維持를 爲하야擧國一致를 要望하고 健全한 財政及軍備均衡의 必要를强調하엿다

八面鋒

◇ 英獨佛伊蘇 五國間에 不可侵條約 締結을 英으로어內相示唆。
◇ 萬一 이것이 成功된다면 英佛蘇等 現狀維持國의 勝利。
◇ 그러나 獨伊의 勢力이 恢復되는 날엔 一片의 休紙化가 될지니 이것을 武裝平和라하야 英野黨이 論難할도當然。
◇ 朝鮮의 第一回 米穀收穫豫想高는 昨年보다 三百萬石減 全國을치면 一分三厘의減少라고。
◇ 戰爭은 繼續되고 米實收는 減하니 穀價는 오를바에。
◇ 農業國 朝鮮이라 살것을 오르는것이 大幸。
◇ 學生作品 五百點中에서 優秀作品 百八十點을 精選。
◇ 年年 發達하는 어린藝術家의 技術을 기뻐할뿐。

我空擊精銳部隊

重慶、洛陽、宜昌猛爆

【香港五日發同盟】重慶來電에依하면 我空襲部隊는 四日午前九時半 事變以來三回째의 重慶空襲을 敢行하고 重慶郊外의 飛行場에 數十個의 爆彈을 投下하야 多大한損害를주엇다

【香港四日發同盟】中央通信洛陽來電에依하면 日本軍飛行機○○機는 四日午前九時 突然洛陽上空에出現하야 城內에 爆彈數十個를投下하고 敵의 軍事施設에 潰滅的大損害를주엇다

【香港五日發同盟】中央通信宜昌來電에依하면 我空襲部隊○○機는 昨四日午前九時 揚子江上流湖北省의要地 宜昌을 襲擊하야 猛烈한 高射砲火를무릅쓰고 市內各所의 軍事施設을爆擊하엿다

人事·集會

▲李東善、金丰炳、洪鐘裕、孫完榮四氏는 京城商議議員立候補 人事次本社來訪
▲大竹十郎氏(總督府內務局長)多獅島築港事務協議次六日午後三時二十八分京城驛發新京에出張
▲山田忠次氏(總督府遞信局長)同上
▲工藤武夫氏(總督府鐵道局長)同上
▲松澤龍雄氏(總督府外務部長)東京出張中六日午後一時三十五分京城驛着歸任、多獅島築港事務協議次同日午後三時二十八分京城驛發新京에出張
▲榛葉孝平氏(總督府土木課長)多獅島築港事務協議次五日夜京城驛發新京에出張
▲坂本嘉一氏(總督府土木課事務官)同上
▲安田宗次氏(總督府燃料課長)七日午後八時五十五分着任豫定
▲草間秀雄氏(日本產金振興株式會社副社長)新任人事次五日來社

모양잇고 튼튼한
별표고무신
별표고무신
中央商工株式會社

朝報案內
齒科醫師招聘 詳細는左記로面談해주시요 鐘路一丁目電停前 朴扶榮齒科醫院
李英熙殿(一名英子) 金은비판고레차저나갓스나 소식업서 사생을모르고 父親은늘내신호위하시와 사진단서를보냄니다 한테 연락해주시요 明治町一 李元吉
ピアノ風琴 個人教授 音樂의趣味가지신분 音樂에對한初步智識이업는 者라도 可함 平壤府 (基督青年會館越便) 風琴 個人教授院

綿布 現金問屋 時勢表進呈 店舖에請求하시는대로
秋冬用新柄品 新入荷具備 時勢絶對低廉 地方人士歡迎
京城鍾路 東順德 電話光化門

大日本封切

明治座 愛染かつら 次週十一日封切 予告

蜷川伊勢夫監督
主演 坪内美子 南部耕作
深き港の夜・正しく生きんとし泥沼にもがく女……子供を残し妻に去られし男……人の世の愛……どん底を描く特異篇
大船波止場の抒情詩 特異篇
子をめぐる二人の女
恋の凱歌
監督 ジョン・M・スタール
主演 クラーク・ゲーブル マーナ・ロイ
世を揺った一パーネルと……永久に不滅の……
"PARNELL" 『愛國者パーネル』改題

待望久しき……半島映画界革新の先驅的烽火篇!愈々完成!——全鮮封切迫る!
漁火(いさりび)
松竹キネマ會社後援 極光映畫社第一回作品 三三商會配給
可憐なる半島娘を圍る哀艶純情のローマンス!漁村と都會に描く抒情曲!!
監修 島津保次郎 監督 安哲永 音樂 堀內敬三

京城 黄金座 平壤 大劇 大邱 キネマクラブ 釜山 寶來館 仁川 愛館

各種弊端一掃코저 '無盡制度'에 再檢討

이번中央無盡의不正事件을契機로

監督當局에서改善策講究

중앙무진회 부정사건을 게기로 일부중역들의 죄상도죄상이려니와 이것을 기회로 무진제도 그자체에대한 근본적인재검토가 절실히 필요하게되여 방금그감독관청인 경기도 이재과(理財課)를 중심으로 관계자간에 무진제도의 개선책을 연구중이라한다 즉 무진제도의 근본약점은 돈쓸사람은만코 어더쓰게되는사람은 극소수라는점인데 이제도를 현재대로 방임해두는 한에서는 필연적으로권리금이니 권리이동의 중개수수료니 하는것이 부러다닐수밧게는 업게된다 따라서 이것이무진제도의 근본결함이여서 이것때문에 권리금 수수료를 둘러싸고 자연 여러가지의 담합(談合)과 기타 부정사건이 배태되게되여 제도 그자체가 범죄의 온상(溫床)이된감조차 업지안흠으로 이점을 개정내지완화코저 방금 감독당국의 관계자사이에서 문제가 되여잇는 모양인데 그개정시안(試案)의 요점은 다음과가튼 두가지 점이라한다 즉첫재는 권리금, 수수료를 종래처럼 알선인인 회사외교원이나 중역의개인수입으로 하지말고 회사자체의수입으로만들도록 규정을개정케하여 일반가입자의 배당수입이 되도록 할것이라는안이고 다른하나는 사행적(射倖的)경향의 추첨제도의 폐해를 제거시키기 위해서는 모름직이 어느가입자로하여금 설혹 추첨에 낙선되더래도 상당한 금액수의 기회를 놓여주도록하야 상당한 담보만잇스면 회사가 상당액수의 융자(融資)를 허하도록 하자는안인 두가지안이 그것이다 그중첫재안은 현재자발적으로 사규(社規)개정을 신청해오는회사도 잇고하여 그실현성이 퍽으나농후하나 둘째안 만은 사정이달러 만주국에서는 용이하게 그실시에 성공하엿서도 일종의 대부(貸付)제도를 허하는 폭이되느니만치 조선서는 특별히 은행(銀行)측에서 극도로공포를느껴가지고 필사적으로 반대기세를 올릴기미가 농후함으로 과연 이재당국측에서 이가튼 은행측의 반대를일축하고 초지를관철할수잇슬는지가 문제이며 그실현이 저윽이어려울것이라고 한다

폐잇는 조선회흥주식회사중역 산하견(山下堅)씨의집 이층에서 불이나서 이층전부를태우고 오후 한시삼십분경 겨우진화하엿는데 손해는약일천원가량이며 원인은 방금조사중이라고한다

朝鮮、滿洲의新關門 多獅島大港灣施設

附近에는工業地帶設定等을兩國協議次

今日朝鮮關係官・新京에

용암포(龍岩浦)다사도(多獅島)간일대에대공업지역을 건설하는동시 다사도에 대축항을 실시하야 장내일천만톤의 선박이무난히 출입 할수잇도록 대규모의항만시설을 하고자 오는칠일부터 이일간신경(新京)에서 조선총독부측과 만주국측의 연합협의회를 개최하기로되엿다 다사도축항은 총독부에서 일천삼백만원의 예산을 드려서 삼개년계속사업으로 대축항을 실시하기로되엿든것인데 다사도항만은 만주국과도지리적 밀접한관계가잇스므로 만주국과제휴하야 일만양국공동항만을 시설하는것이 양국산업개발 또는 무역진흥관계상 가장필요한것이기때문에 지난구월 중순경에 총독부(築港)사무관이 신경에 출장하야 만주국당국과 이에대한 준비의논을하고도라왓든것이다 이축항이완성되면 선만양지의 상호관문으로서 산업무역 교통상 획기적중대시설이 될것이라한다 이회의에출석할 총독부관계관은 오일오후삼시이십팔분까지 전부출발할터인데 그인원은 대개다음과갓다

▲大竹內務局長 ▲山田遞信局長 ▲工藤鐵道局長 ▲榛葉土木課長 ▲松澤外務部長 ▲坂本土木課事務官

傷兵平愈祈願 午前八時에全府民默禱

・銃後後援强化週間第一日・

총후후원강화주간 첫날인 오일아침여덜시 경성부에서는 경성신사와 일본군데에서 국위선양무운장구와 상이군인 평유기원제를 엄숙히 집행하고 식에참렬치못한 부민은 각자잇는곳에서 싸이렌에의하야 일분간묵도를 올리며 총후의각오를 새로히하엿다 경성신사에서는 이날아침열시 오십오분 경성부윤이하각부과장정총대 국방 애국부인회원 방호단원 일반부민이경내(境內)에가득찬가운데 식을시작하야 수발(修祓)이 잇슨다음 정각여덜시에 일분간묵도를 올리고 시궁사(市宮司)의 축사주상(祝詞奏上)과 좌백(佐伯) 부윤의 옥관봉전(玉串奉奠)으로 동여덜시반 식을마첫다 (사진은 경성신사의기원제)

暴騰物價抑制引下에

物價委員會・各專門委員會活動開始

石炭・煉炭・木炭

─三分科別로公定價格審議─

纖維關係는明日부터

사변이래 폭등에폭등을 거듭하고잇는 물까의억제는 총후의 생활안전을 위하야 시급적절한 문제로서 총독부에서는 중앙에 총동하야 이미 물까위원회를 조직하엿고 어제 그제일회회합을 하엿고 절기관계상 위선 연료를필두로 그억제대책과 가격공정을 심의하리라함은 기보한바이다 지금형편으로 연료를비롯하야 옷감등 특히 겨울을압두고 일상생활에 가장긴절한 관계가잇는 물까억제는 하루하시가 바쁜형편이어니와 물까위원회도 드디어 그전문위원까지 임명을 뭇내엿스므로 드디어 구체적활동을 개시하야 폭등의억제에서 사변전시세까지의 인하를목표로 각기 심의(審議)를 시작하기로되엿다 그리하야 전문위원회제사부문인 연료(燃料) 물까위원회는 사일오후두시부터 총독부제일회의실에서 회의를개최하기로되엿다 (實田)위원장통제하에 제일회 회의를개최하고 위원장의인사가잇슨후 석탄, 목탄, 연탄등의가격등위를 억제하기 위하야 취할구체적방책 에대한 자문사항을의제로 협의에드러가섯스나 별로결정을보지못하고 당일은 위선석탄, 목탄, 연탄등의각분과회를 조직하고 각분과회에서 신중심의하기로한후 각분과위원을 선정하고 오후사시산회하엿는데 석탄에관한분과 위원회는 오일오전 구시부터 총독부식산국장실에서 다시회의를열고 석탄가격등위에 대한것을 협의하얏다 그리고 제일부문인 섬유(纖維)물까위원회는 육일오후 한시부터 경성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제일회 회의를개최

丁子屋配達夫

疑問의飮毒

정자옥(丁子屋)배달의 의문의자살─부내현저정(峴底町)사십칠번지거주 정자옥배달 고림남고(高林男)(二七)은 사일오후 일곱시조선신궁(朝鮮神宮)뒤참도(參道)에서 독약을먹고 고민중인것을지나든 사람이발견 본정서에게출하야 동서에서는 곳그청년을장곡천정(長谷川町)금본의원(今本醫院)에 입원시켯는데 생명은건질것갓다하며 자살원인으로 본인은 생활난을 내세우나 가족과동모들의 말을드르면 생활난으로자살할이유가 업다고하야아직 참원인을 알수업다고한다

永登浦에火災

【永登浦支局電話】오일오후여시삼십분경 남경성역(南京城驛)아

車輛增備計畫

明年豫算에千二百萬圓計上

年年히膨脹하는鐵道事業

철도국에서는 차량증비(車輛增備)오개년계획에따러 소화십일년도이래 해마다 기관차 객차 화차를 대량으로 더맨드러내고잇는중인데 시국관계와 여객및화물이 점점 증가함에따러 명년도에는 총액 이천팔백만원의예산으로 합계 일천구백사십사량(輛)이나되는 차량을 제조할예정을 하고잇다 이가운데서 여객열차 소용의『파시』형(型)기관차 삼십량과 화물열차소용의『미까드』형 기관차 구십량과 객차 일백이십량과 화차일천칠백량을 각기 제조할예정이다 기정예산으로는 명년도배당분오백만원이므로 부족액 일천팔백만원은 새로예산을청구하게될터이라한다

清道驛濃霧로

아까즈끼事故

【鐵道局着電】오일오전여덜시십사분에 경성으로오든 특별급행『아까즈끼』가 경부선청도(淸道)역에드러올지음에 미아마 천천히진행하든중그역선에잇든 화차에충돌되여 큰소동을 이르켯스나 다행히 기관차의 헤들라잇을 파손하엿슬뿐이오 열차와화차는별손해는 업섯다 이때문에『아까즈끼』는 정거역이아닌 그역에서 약십일분이나 지체하다가떠낫다한다

闕席判決로死刑바든 朴仁恒逮捕押來

安南서追放・上海서逮捕

【新義州】평북선천군대산면원봉동(宣川郡臺山面圓峰洞)에 원적을 둔 박인항(朴仁恒)(三○)은 대정팔년 만세사건때에 상해로건너가 상해공동조계 해령로욱덕리(上海共同租界海寧路旭德里)에 주소를두고 인삼행상을하며 당시 조선○○당에 가입하야 군자금을 모집할목적으로 대정구년삼월십오일 일행열두명이 각각무기를 휴대하고 조선으로 건너와 선천군대산면사무소를 습격하야 면장 김병은(金炳殷)을 쏘아죽이고 달어낫섯는데 그후 사건이 신의주지방법원에 송치되여 대정십일년사월 궐석판결로 사형판결을 바든터이다 그런데 금년칠월일일 불령인도지나(佛領印度支那)로부터 추방(追放)명령을밧고 상해로 왓든 사실이 상해령사관 경찰서에 알려지며 구월이십팔일에 이를 체포하야 평북경찰부에서는 시원일 이를 신의주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송치하야다

色鉛筆

남을 못 밋는 사람은 자기를 못밋기 때문이니 자기자신도 못 밋고 남도 못 밋는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가려 가엽고 불상하다 소위 알기는 안다면서도 자기마음의 자기를 못잡은 사람이 또 그런것이다◀전차 길에 나서면 이게 남대문 가는 차애요? 네! 그럿습니다고 아주 친절히가르켜 주어도 다시 딴사람더러 또가르쳐달라고 몃번씩 어나뭇고그래도 안심이 안되여서 어리둥절하다가 차를 노치고 만다◀이런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기도하고 미련 해서그러키도하다고 하겟지만 또일면엔 세상에 불치하고 미덥지못한 사람이 만키때문에 만히속아도 보앗다는것을 말하는것도 될것이다◀다른하나는 남의 눈치만보고 의심만하는 그류의사람이니 이것은 자기주견이 업시 겁으어 속만찻는소위 소인이라결국 자기를 못밋는데로 남을못밋는 것이다◀아무리 천하를 차지하데도 자기의 마음을차지하지못한 것가려비참한것이다

天氣豫報

豫報 今夜曇 小雨 / 明日曇 時晴

오늘의라디오

第二放送 ▲午後六時 童話와合唱 ▲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六時三○分 講演 ▲七時三○分 講演 ▲八時(東)파이프오르간獨奏 ▲八時三○分 唱劇調 ▲九時 野談 裵志浩 ▲一○時一○分 初等國語講座

移住證이업스면 斷乎、故鄕에還送

滿洲移民의唯一條件

조선농민의 만주이주에 대하야는 전번신경(新京)에서 개최한 만주이민사무처리위원회(滿洲移民事務處理委員會)에서 협의결정한바와가티 집단(集團) 집합(集合) 분산(分散)을막론한 통제이민만 금후매년 일만호씩이주시키기로 되엿는데 문제는 만주국 당국과 관동군 당국에서도 감정을 종래와 달리하야 성의껏알선에 노력하는한방 종래제한되여 잇든 어민 구역을 거의 철폐하야 만주 전토를 개방하되 다시파하엿스므로 살길을 차저고향산천을 등지고 북으로북으로, 만주에가는 이주농민들은 저윽이 여러가지 편의를엇게되엿다 그러나 이주증(移住證)을 가지지안코 건너가는 어민이잇기때문에 만주국관계방면과 마찰을 이르키는때가 종종잇는데 금후이것은 엄중히 취체하야 이주증을가지지안흔사람은 통제이민 자유이민을 물론하고 고향으로 송환시키기로되엿다 그리하야 총독부외무부에서는 이폐단을 일소하고자 불원관계각지방에 통첩하기로 되엿다

大田密酒檢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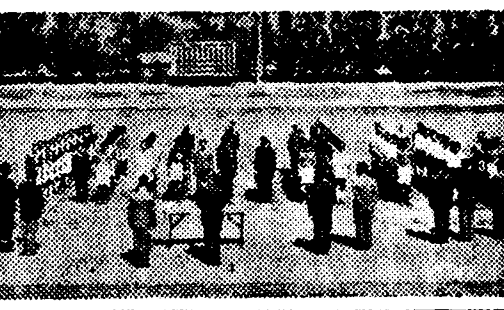
【大田】대전세무서(大田稅務署)에서는 지난삼십일부터 대덕군(大德郡)내 밀조(密造)검거를개시하엿는데 지난일일까지 십일건이나 검거되엿다는바 전년도동기로보아 더감된모양이라고한다

(사진은 정동예배당)

第三回監理會總會

今日부터七日間開催

기독교조선감리회(基督敎朝鮮監理會)에서는 제삼회총회(第三回總會)를 부내정동정동교회(貞洞禮拜堂)와감리교회신학교(監理敎神學校)강당에서 오일부터 십일일까지 일주일동안 계속한다 첫날인오일에는 오전아홉시정각에 국기게양식(國旗揭揚式)을 마치고 부대표와위원들이 참석하야 총리사(總理師)양주삼(梁柱三)씨의사회로 회의를진행하엿는데 오후예시반에 일단회를 휴게하고 오후에는 두시부터네시반까지 각부를나누어 위원회를 개최하고이어서 동여덜시부터위원회를 계속개회할터이라한다 금번총회는 남북감리교회가조직적으로합동한후 일천구백삼십년제일회총회이래 삼십사년제이회총회의무류이어사년만에총회를 갓게된것입으로 회기중거듭하여 계속될각부위원회는 우리만에가까운 신도들의 대표들이니만치 각부위원회의결과는 종교발전상이나 주목되는바가만타 더욱이 금번에는 총리사양주삼씨의 임기가 만기임으로 제오회인 신임에는 총리개선이되게도 잇슬터이라한다



十二團體參戰한

神宮蹴球遂開幕

劈頭에中東、咸興永生을擊退

第十四回 朝鮮神宮奉賛體育大會 蹴球選手權大會 第一日은 五日午後一時부터 中等部의 咸興永生、中東、海州、普成專門、延專、一般部의 咸興、信川、全普專、景專、一般部의 十二個團體의 選手入場式이잇서 國歌合唱、國旗揭揚、皇居遙拜、一分間의 默禱後 朝鮮武道館長 久新氏에 뒤이어 中等部 培材、專門部 世專、一般部 淸津等으로부터 優勝旗返還이 잇섯고 參加選手一同을 代表하야 寶專主將 朴奎楨君의 宣誓、鄭文朗君과 皇國臣民誓詞齊唱이 끗난後 體育大會長의式辭書 朗讀、嘉納總務氏가 代讀하고 審判部玄正杜氏의 注意說明이 끗난다음 中等部第一回戰인 咸興永生對中東學校戰이 열리엇다 (사진은 입장식광경)

◇第一回戰

中東2 永生1

【前0…0後1…1延1…0】

咸興永生對中東學校戰은 同日午後一時三十分부터 金容植(主)朴宗植、李龍珠(線)三氏 審判下에 永生先蹴으로 열린바 七分까지에는 風勢를利用한 中東軍攻勢에나아가 永生陣頭에 突入하엿스나 食堂機會조차 엇지못하고 물러섯다 同九分과十分에 中東軍맹렬을利하야 永生軍一時危機에 빠젓스나 FB의 防禦로無爲 其後十七分에 永生 LW金益鎭君의 平直前交이 잇섯스나中東軍의 妙防으로 好機를 逸하야 前半은 一對一로 비기고 後半에 드러가 中東十四分에 一點을 先取하니 三十三分 永生軍一點을 返回하야 一對一同點으로 延長戰에 드러가서 中東軍이 一點을 너어 勝利하이엇다

中東

金太白	GK	
李英永	RF	
朴晶淳	LF	
李一鉉	RH	
崔永模	CH	
金聖浩	LH	
李時暢	RW	
李明東	RI	
李相三	CF	
李東柱	LI	
中東石	LW	

【永生】

	前	後	計
中東	7	2	3
	4	5	5
永生	6	0	7
	3	1	1

地方蹴球聯盟所

◀揚州東中學=體陸旅館(貫鐵洞) ◀信川蹴球團=和路旅館(同上) ◀昌平蹴球團=慶尙旅館(同上) ◀春川蹴球團=貫鐵旅館(同上)

神宮庭球

各道對抗戰

第十四回朝鮮神宮奉賛體育大會 軟式庭球는 來八、九、十四、十五、十六、十七、十八의七日間京城運動場 京城府營 奬忠壇等의세코-트에서 擧行하기로되엿는데 對抗戰의 對陣은다음과가티 決定되엿스며 選手權大會의 參加組數는 男子OB選手權(十月十八日午前九時京師코-트)十五組、男子中等選手權(十月十六日午前九時京城코-트)七十二組、女子中等選手權(十月十七日午前九時京城府營코-트)四十七組、男子一般選手權(十月十七日午前九時京運코-트)八十一組、男子大學高專選手權(十月十五日午前九時京運코-트)三十二組로써 前記選手權大會出場選手는 一百四十七組의 多大數에 達한다

【一般男子各道對抗】(十月十六日午前九時京運動場)

京畿道、平安北道、黃海道、咸鏡北道、慶尙南道、京城府、忠淸南道、全羅北道、江原道、忠淸北道、慶尙南道、全羅北道、平安南道

【女子中等校各道對抗】(十月十五日午前九時京城運動場)

江原道、忠淸北道、慶尙南道、全羅北道、平安南道、慶尙北道、黃海道、咸鏡南道、平安南道、京畿道

【男子中等校各道對抗】(十月十五日午前九時京城運動場)

慶尙南道、忠淸北道、全羅北道、平安北道、慶尙北道、平安南道、全羅南道、京城

【男子大學高專對抗】(十月八日午後一時藥專九日午前九時京城運動場)

世專、醫專、藥專、高等工業、高等農業、延禧專門、高等商業、京城法專、京城齒科、普成專門

同德主催의 少女陸上

十八個校가參加

女性體育의 向上發展을 目標로한 同德高女主催의 第五回小學校女子陸上競技大會는 來九日午前十時부터 昌慶町 同校庭에서 擧行한 豫定期로 되엿는데 參加校는 昨年度優勝校 同德小學을 爲始하야 淸洞、齋山、淸雲、和光、昌尾、校洞、孝悌、漢南、昌慶、壽松、惠化、芳山、德壽、敦義、加明、光熙、龍山等 十八個校의 百五十餘名少女가 參加하야 벌써부터 大盛況을 豫期하고잇다 그리고 同大會의 歷代優勝校는 第一、二回에는 孝悌小學校가 第三、四回는 同德小學校가優勝하엿다한다

運動界人事・集會

▲咸興蹴球團 一行二十名은 神宮體育大會 一般部蹴球戰에 參加코저 團長全相洙氏와 洪德洙氏引率下에 五日朝入京、貫鐵町大京旅館에 投宿

▲李成周氏(朝鮮體協北支部副部長) 五日朝入京、貫鐵町大京旅館에

服藥의最適期！

效果 本位

虛弱을하로밧비恢復합시다

只今으로부터 日氣가漸次로 寒冷해짐니다。秋凉期로부터 冬寒期에亘한 모든疾病은 大槪呼吸器病으로부터始作되야 甚하게되면 肺炎 結核等의 重症으로惡化됨니다。

그것은體內에 비타민蓄積量이 減少됨을따러 身體의抵抗力이減弱되고 特히呼吸器粘膜이弱하게되여 感冒菌과結核菌이 侵犯하는것이므로 秋凉期인只今에 身體의抵抗力을强化하야 嚴冬에備하지안으면안됨니다。

네온톤 (NEOTONE) 은人體에絕對必要한비타민榮養素를供給할뿐아니라 結核菌을殺滅하는 有效成分이適當히含有되야 呼吸器疾患과 結核豫防에 特殊한作用이잇는外에 消化機能을活潑케하야 食慾을增進하며 身體를强壯케하는再建設的作用이卓越하므로 病弱한분은 勿論 누구나本劑로써 抵抗力을强化하야 病魔를未然에防止하시기바람니다。

適應症 (本劑를服用하실때는먼저醫師에게相議하야주십시요)

肺結核・神經衰弱・腺病質・貧血症・腺病質・食慾不振・肋膜炎・産前産後・虛弱性氣管支加答兒・一般虛弱・榮養障碍・心臟疾患・病後恢復期

世界的 强壯劑

네오톤發賣元 株式會社 柳韓洋行 京城・大連・上海

ネオトン

(全國有名藥房販賣) 包裝 小瓶 中瓶 大瓶

10月6日より封切 均一五〇セン

マダ間時映開(但)スマシ致替入部朝早

遂に男の中の男のお涙には泣いて純り出す男の中の男繪卷!

東寶映畫超特作 原作・小島政二郎 脚色・清貴新聞連載 演出・萩原遼

大河內傳次郎 主演 千葉早智子 助演

清水次郎長

家庭日記

後篇

東寶映畫特作 原作・吉屋信子 脚色・小說連載・每日・東京日日

大日方傳・中澤ひよ 千葉早智子・英百合子 月田一郞・山縣直代 竹久千惠子・若原春江 入江たか子特別出演

嗚呼南鄕少佐

海軍軍事普及部後援 鶴山館唱劇

若草劇場

讀賣新聞連載……大衆的興味百パーセント

髑髏錢 解決篇 (卷の雲)

嵐寬壽郎・市川春代

河原市川 新興 五郎 作郎 助之々

保住旦辞ン入ム

高田浩吉・李錦波の

プリンシパル社超大作 ターザンの再現 バスター・クラブ主演

米國リパブリック特作 狂乱のマンダレー コンラット・ネーゲル主演

6日より

實演者 高李咸金田 福錦菊白英 壽波節花花

唄 踊り レビュー 實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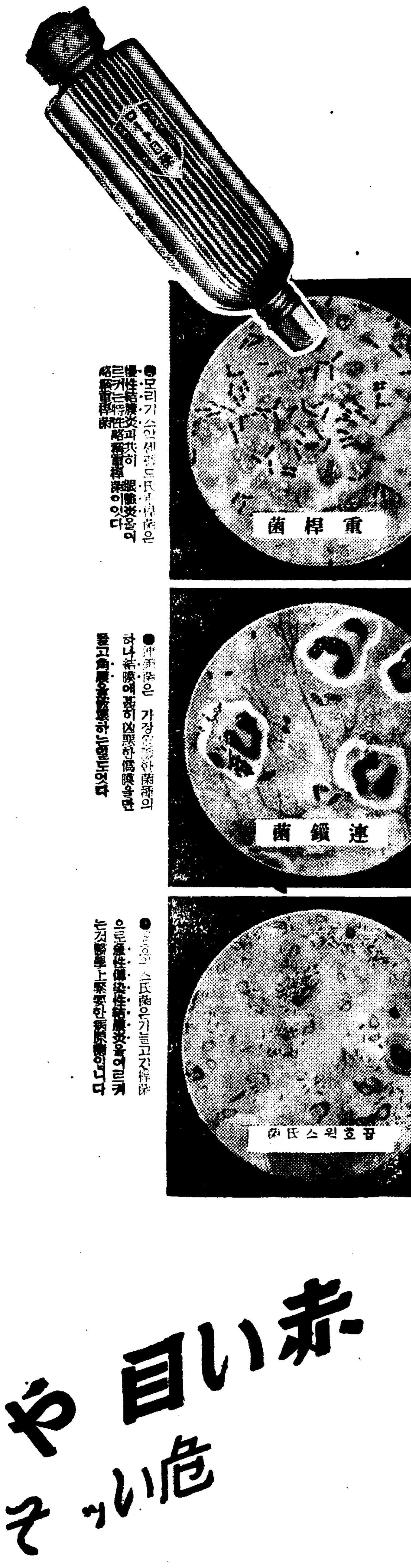
黃金ダンシングチーム 黃金ジャズバンド (上映中特別公演)

黃金座

國民精神總動員
○神宮과皇居에遙拜를합시다
○힌새慰問袋와慰問狀을보냅시다
○國産品을愛用합시다
○虛費말고貯金합시다

쓰리지안코 아푸지안는

로-도안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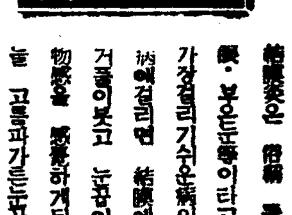
●모리기스악센펠드氏小桿菌은 慢性結膜炎과共히 眼瞼炎을이르키는特性 略稱重桿菌이잇다

●連鎖菌은 가장猛烈한菌種의하나 結膜에甚히凶惡한僞膜을만들고角膜을蠶蝕하는일도잇다

●꼽호위스氏菌은가늘고긴桿菌으로急性傳染性結膜炎을이르키는것醫學上緊要한病原菌입니다

赤い目や目に

危いッそれは結膜炎の症狀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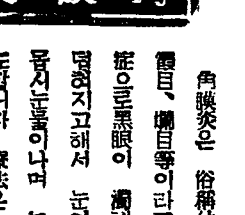


結膜炎

結膜炎은 俗稱 붉납눈 臉眼 淚眼・부은눈等이라고해서眼病中에도 가장걸리기쉬운病의하나입니다 이病에걸리면 結膜에 充血이되야눈거풀이붓고 눈곱이나고 눈에 異物感을 感覺하게됩니다 重해지면 고름과가튼눈곱이나고視力도障害해집니다 이것을 治療함에는 每朝洗面時에淸水로눈을잘씻고눈곱을떼가내여서 ロート目藥을一日二三回點眼합니다

ロート目藥은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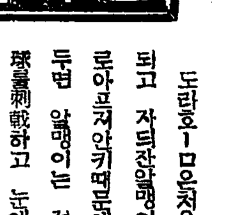
1、殺菌作用으로病原菌을죽이고
2、消炎作用으로炎症을업새고
3、鎭痛作用으로疼痛을업새고
4、收斂作用으로創面、潰瘍面을 收縮해서分泌物을抑制하는等各各그性能이綜合的으로 活動하야 優秀한効果를 나타냅니다。



角膜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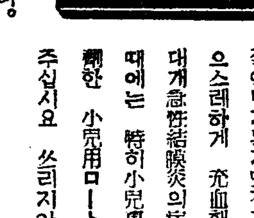
角膜炎은 俗稱삼눈、쑥시는눈、假目、爛目等이라고하는 黑眼의炎症으로黑眼이 濁해지고 하얀것이 덥혀지고해서 눈이 침침해보이고 몹시눈물이나며 눈곳이 젼부르기도합니다 療法은 大體結膜炎과갓습니다。

ロート目藥의優秀한消炎作用은 角膜의炎症에 對해서가장有効합니다。



도라홈

도라호ーム은처음結膜에 充血이되고 자되잔알맹이가생기는데 別로아프지안키때문에그대로 내버려두면 알맹이는 점점만허저서 眼球를刺戟하고 눈에異物感을 感覺하고 거문자위가흐릿해지고눈섭이 까실까실해서눈모양을이기실케항은 말할것도업고 重症으로移行해서 대단히어렵게되는일이잇습니다。이眼疾은 輕한때治療하는것이조코、重해지면 오래끌게되므로自然이治療를等閑히하는데 完治될때까지 決코治療를게을리해서는안됩니다。治療는 每朝洗面後一日數回ロート目藥의點眼을勵行하고 이것을 꾸준히繼續할것입니다。ロート目藥의 優秀한作用은 病勢를 잘抑壓하고 頓挫시켜서 그治癒를 速하게합니다。



小兒의눈에

애기네들이아침에눈곱으로 눈이 잘안떠지든지또갑자기 흰자위가붉으스레하게 充血했을경우 그것은 대개急性結膜炎의症狀입니다 그런때에는 特히小兒專用으로 處方調劑한 小兒用ロート目藥을 使用해주십시요 쓰리지안코 압흐지아어서 아주잘드름니다。

【適應症】
結膜炎・角膜炎・도라호ーム
疲勞眼・學校眼炎・眼瞼緣炎
角膜炎・結膜充血・麥粒腫等

俗稱……결리는눈・흐린눈・淚眼・爛目・血目・霧目・雪目・흐린눈・말눈아질・부은눈・다락지

藥價 ◇小瓶 二十錢 ◇大瓶 三十錢 ◇小兒用 二十錢 ◇徳用 五十錢
▼全國到處藥店에잇슴

◎ロート目藥의點眼容器
第一로 携帶에便利합니다
第二로 使用法이 簡單하고 게다가 켭이잇기때문에衛生的입니다
第三으로新案特許의 自動式임으로 一滴의浪費도업습니다

大阪 山田安民藥房

아직은드물지만 쓰다질고래고기

요리해먹는데에비결이잇서요

고래한마리에서 소백마리분의 고기가나고 영양가치로는 나으면나엇지 못하지안코 또맛도그러하고 이러한때문에 사람마다『고래고기 고래고기』하나 아직은 고래고기가 흔치안코 얼마안가면 정작 고래고기홍수가 날지도모릅니다.

×

일본서는 해마다 삼사십만마리 가격으로처서 사천유백만원의소를 잡습니다. 그고기의분량은 팔천팔백만근인데 그래도 모자라서외국으로부터 이천만근(팔백만원)의 고기를수입해 먹는 형편입니다.

물론 외국에비하면 국민한사람로에 소고기소비량이 사뭇적지만 일본서는 기르는소가적고 목장이며 노아먹일만한땅이 적으므로소 잡는것은 상당한 희생이만습니다.

즉 전시에는 소고기가군수품으로 만히나가지만 그러타고해서 함부로 잡을수는업습니다. 소는 농촌에잇서서 중요한역할을 하는데 그러타고 국민의체력에 업서서안될 영양품인 소고기와 우유가부족해서 갑시올라서는안됩니다. 세계대전당시 독일군사들에게 첫째는소를잡발당한『루ー마니아』의 어떤지방에서는 우아의영양이 묽시낫버

소고기애끼자는리유

어머니의젖이업는애들은 거지반 죽엇다합니다

이가튼게로 소고기가부족하면 갑시오르는데 갑시작구오르고보면 소치는사람은 소를파러서 한목볼려고하는경향이강해지고보면 농촌의생산력 노력, 국민의영양을 해치는것이되고맙니다

여기에서 대용품으로서의고래고기의 장한점이 잇는것입니다

×

그건 그러타하고 고래고기요리에대한것을 말하자니 고래고기가 아직시장에 만히돌고잇지안은관게상 좀어색하기는하나 인제 좀잇스면 어디가든지 볼수잇슬것입니다 고래고기에는 빨간살과 힘껍질이잇습니다. 빨간살은 소고기대용으로『커틀렛』『스끼야끼』테ー키회 그외에 여러군데에 쓸수잇고 힘껍질은 지방분이만흐므로 된장찌개에 너어먹는다든지빠터나타ー드대신 양요리맨드는데 리용됩니다.

그런데 생고기로 파는것과 소금에저러파는것 두가지가 잇는데 소금기만빼고 생고기 처럼조리하면 조흡니다.

취급하는 비결은 섬유가소고기처럼 단단하니까 될수잇는대로 잘게썰고『커틀렛』이나『스티ー크』을만드는경우에도 섬유가 여푸로가지안케 비어야합니다.

고명으로는 생강, 된장, 초, 가튼것을치면 더욱맛이조코 힘껍질은 소금물에담것다가 끄내여 겨(糠)로다가 잘비비면 살이부드러워지고 거죽의 지방이빠집니다. 그다음에는 뜨거운물에 두서너번 담것다 내어 다시물로 씻슨다음에 요리를하면 참맛이잇습니다.

유행게

면목이달라진 춘추복, 동복

국방조가농후해젓다

겨울것 가을것의 신사복은비상시국하의 국책적 견지에서수파, 비단실로짠것등의 실용적인것인옷감으로되어 작구나오고잇습니다. 또 물자절약의 취지에따라 조끼업는것 깃을 재키지안는것 바지통접지안은것 그리고 또네타이와이샤쓰 소용업는등의스타일이 신비상시형이라고해서나오게 되엿습니다.

재끼는 신사복은 갑지고 모양잇는것길을 엇시하고 발랄한 남성적인 실용적인 스타일에중점을 두엇습니다. 옷저고리는 너무 길게안코 깃접힌 부분은 넓게 길게하고 스템을 느추엇습니다. 엇개통은 좁녑고 그리고 약간 치켜올리간편이며 억개와함께 가슴의품도 풍덩하고 그아래 허리로부터 엉뎅이까지는 그냥설며시 내려가게되여잇습니다. 또 군국조의 스타일이라고해서 앞단추엇셋을달고 그단추사이를 넓게햇스며 라펠을려게하고 가슴을 심커퍼게 넓게하고 포케트를 것은로다스타일도 일부 젊은사람에게 환영밧는다합니다. 조끼는 짧고 폭이넉넉하게하고 바지는 허리를길게하지안어 외스트밴드로 매게하고 통은 엉뎅이와 넙적다리께는넓고 아래로내려가면서 좁게된것입니다.

빗갈은 국방색을 반영해서 록색계통의것이 머리를 록게되엇스며 여기에곤색이석긴 불루이쉬그리인이 젊은사람에게 어울리는데 일반으로는 회색과 곤색이주류가되어잇고 고동색으로온건한신한벗치조코 엷은빗중안조흔모양입니다

옷감으로는 오래입어 실증안날 말하자면 문이가잇드래도수수한것이 환영밧습니다 우ー스테드가튼것의 실용적인것과 국산품스파의진출도 주목됩니다

구두창에바르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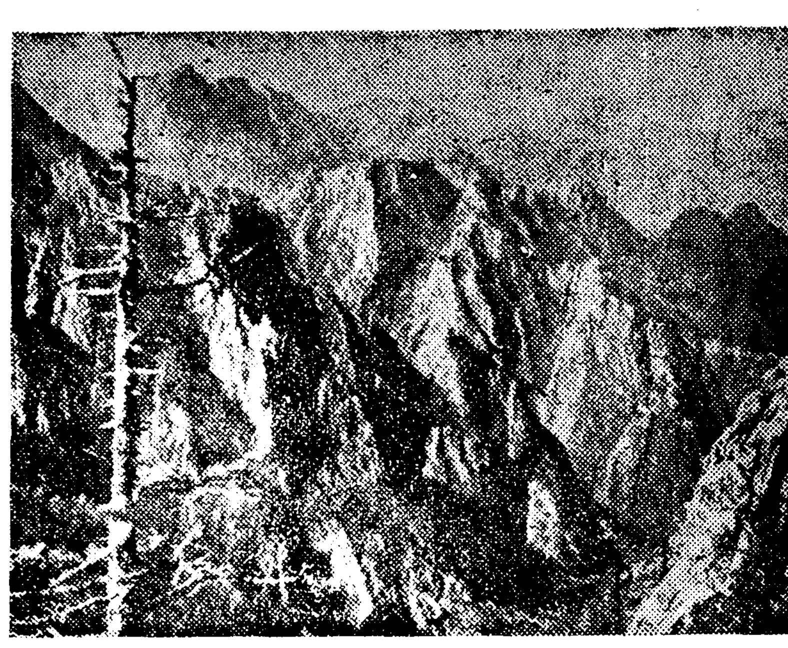
훨신더더달습니다

가죽이동제때문에 제일문제된것은 구두 밋바닥창을 대는가죽에 대용품인데 고래가죽이쓸만하나 그것도 넉넉지못하야미창멸 가죽이 업서 크게곤란한 형편입니다.

그러키때문에 발견된것이『구두밋창약』입니다. 이것은 액체로되여잇는데 이것을 구두밋창에 바르두면 그성분이 기룸이가죽에 배여들어 그냥이면 오래갈 개월신을것을 약일년은 신을수 잇스니 가죽의 부족이 심한이때 다행한소식입니다. 조선에도 곳 나오겟지요.

今年家庭婦人들노리는 天下名山金剛山探勝

그나마貸切自動車로편한행차



금강산일만이천봉

지난번의『들노리』대회는 작년바루이맘때엿습니다 일년에 겨우 한번 여즐거운노리를 올에는 멀찍이 금강산으로 정햇습니다. 금강산에조차는소리를 이제새삼스러 느러놀필요야잇습니까 여러분의마이 설명보다 압서 일만이천봉의 령기에 어리고잇슬것입니다.

떠나는날 十月十五日밤

떠나기는 시월십오일밤열十一時五분 경성역을떠나 이차가바로 내금강으로가게됩니다. 침대차를 타게되니까 이튼날아침눈을 뜨실때는 벌서 내금강의 크 망이 황홀하게 아페벌러질것입니다.

구경할곳은 內外金剛

장정남자와달라 아모리명산구경이래도 진땀이흐르게까지 거를맛은업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길닷는데는 모두대절자동차로 버젓한행차를합니다. 그리고는 다보게되니 호화스러운행이라고도 볼수잇습니다 그러나마 내외금강을 다봅니다.

회비는매인 二十二圓

회비는 한사람아페 이십이원입니다. 그리고 정원이 너무만혀도 괴차거북하실것가태서 삼십명으로작정햇습니다. 갈적올적침대차에 자동차 드라이부가 돼노아 이 이상의 인원은 곤난하니까요.

도라오는날은十月十九日

서울서 시월십오일밤떠나 그이튼날 내금강에내려서부터 자동차로 바로내외금강을 구경한다음에 도라오는길은 동해북부선으로 안변으로해서 도라오게됩니다 이러케해서 닷새가걸리는데 괴지잠은 나흘이지요 경성역도착은 십구일아침일곱시이십분

신청기한은十月十二日까지

신청기한은 떠나는 사흘전 십이일까지 회비를 가지고본사『사업부』에오서서 신청하십시요 한번신청하신뒤에는 사정이잇서 못가겟소하서도 회비를돌려드리지 안습니다.

主催 朝鮮日報社事業部

우리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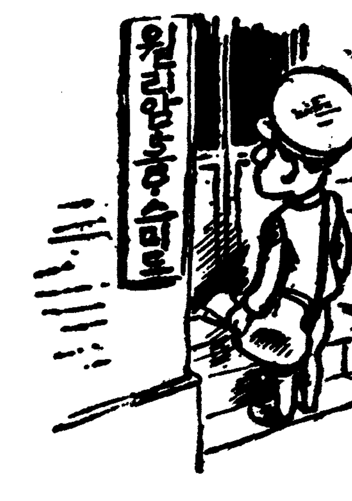
산술가든이름

미국『호ー마ー빈』이란애에 괴상스런 이름을 가진사람이 살고잇세요

『월리암·5 ー8·스미드』

어째서이러케 산술과가튼 이름을 부르게되엿느냐 하면 우편부가 편지를 잘못 전할가바 그의 아버지가 어러케지어주엇답니다.

(평양신암 명영운)



長篇小說

愚氓 【147】

朴泰遠作 洪祐伯畵

두個의墓穴(1)

『소고ー윤』

하고 꿈지럭한것 절게 빼아서 『사료ー』 하고 뒤에다 또 갓다 부치는 품은 얼른 듯기에 제법 어울려엿스나 잔통이에다가 소금통을 질머진 체격이 아모래도어색한 품하고 분명히 이 장사를 시작한지 얼마가 못되는가 십다.

선술집 웃집 문전에게 다가 서서

『소금 안사시까아?』

안에다가 대고 웃는 소리는 틀림업는 황해도 사투리。

『안 사우。』

부엌편에서 대답은 즉시 들렷건만 이번엔 술그머니 대문안으로 드러가 중문안까지 바짝 다가서서

『소금 안사시나요?』

은근한 소리로 또한번 물으면, 그김에 안을 두리번 두리번 살피는 꼴이 일테면 수상쩍어,

『글세 안 산다니까……』

개수통을들고 부엌에서 나온 젊은 아낙네는 그 어동리에선 나치 선 소금장사의 우아래를 훌터보고 한마디 톡 쏘앗다。

소금장사는 다시 그집을 나와

『소고ー옥 사료ー』

『소고ー옥 사료ー』

두어간통을 못 다 가서 또 이번엔 선술집 마주편 집으로가,

『소금 안사시까아?』

『안사우』

그래두 또 중문깐까지 들어서서,

『소금 좀 사시지요。』

장독대에서 고추장을 푸고잇는 주인아낙네의 얼굴을 흘금치어다 보려니까,

『아, 글세 안산다는데 어디까지 들어 와서……』

퉁명스러운 편잔을 채 절반도 듯지 안코 바그로 어슬렁 어슬렁 나와,

『소고ー옥 사료ー』

다시 외우면서도 그의표정이 울것가튼것으로보면 소금이 잘안팔린다거나 그러한 까닭만이아니다。

자기업는 사이에 어떤 놈팽이와 서로배가 마저가지고 아마도 분명히 서울로 올라온듯시픈 음흉한 안해를 차저다니기찰할 명목이나 되는지 생각만하여도 맹서방은 뼈가저릴노릇이다。

계집의 그림자는 찾어도볼수업는체 노자는 떠러저 돌아서 올에는 머물러잇지 못하게되고 그러라고 거집의 생각을 제가 알속에서 떨어 버릴것은 도저히어려서 가엽슨 맹서방은 한번 집에나려갓다가 얼마안되는가재 다시 서울로 올라오고야 말엇던것이다。

그러나 장안천지는 언제까지면 통곡하고 거리로 나다니는 수만흔 아낙네속에서도 도망한계집의 모양을 차자내기 하이업서이모양으로 잇다가는 정작안해를 차저볼수 잇기전에 다시 노자는 떨어질것이요 목에풀칠을지니지안코, 더구나 이제는도라갈집도 가지지 안흔 자기가 아프로 구차스런 목숨하나 어어가기도 수얼치 안타—생각되엿슬때, 머천·얼마 안가지고도 장사라 시작할수잇는것으로 어러케 소금통 질머질것을 일러준이가 잇다。

더구나 해본일 업는 노릇이라, 이가 남는대야 참말 면푼어 안되엿스나, 그래도 그나마 안하는것보다는 나혓고, 더구나 장사를 빙자하고, 이집 저집함부루 안을 엿보다는수가 잇는게라, 어찌면 그리고 다니는동안에 서울안, 어느집속에든 편안히 들어 안젓슬 안해 장봉자를 발견해 낼수 엇슬지도모르겟다고—웨 진작 이생각을 못하엿노? 하고 그는 마침내 소금통을 질머지고 나섯다。

그러나 원래가 한사발이라도 소금통을 더 팔것이 목적이 아닌 노릇이라, 일상 다니던데로 단 한두집이라 단골을 느릴생각은 업시, 그저 무척대고 안가본 동리로만 발길을 돌려노하, 그러라고 쉽사리 계집 잇는 곳은 알어내지 못하며, 소금통은 다 저녁이 되도록 별로 가벼워 보지를 못한다。

생각하면 딱하엿다。소금통 질머진 바람에 모르는집 중문안도 기웃거려 볼수는 잇다지만 부인네들이란 언제고 들어만 나려와 잇슬리업는게라 바루 그집속에 흉흔 저를 배반한 가증스러운 계집이 들어 잇슬지도 모를 경우에도 그집안방까지 삿사치 뒤질수 업는 몸이정혀 슬프지 안호냐?

(허지만 저성이면 감천이라구……언제고 만날날이 잇겟지……)

쓰디쓴 침을 꿀떡 삼키고서 맹서방은 대문을 꽉 지처노흔집 아페가 서서

『소금 안사시까아?』

문안으로 들어선달 도리가 업스니까 안에서 들려오는 부인네 목소리나, 잘들 들어 보사고 문틈에다 귀를 박와 가다대여보곤 한다。

十錢으로 病을고치는時代가왓다

이것은日本藥學의勝利입니다。大學目藥本舖의研究部에서多年研究한結果는이러케잘듯는藥이모도『어떤것이나一個十錢』이라는놀라운廉價로賣出되엿다。在來의一般藥價의半額도못되는廉價외다。貴下의求하는藥은어떤것이나十錢입니다 일錢을가지고藥店으로가서『大學十錢家庭藥』(二十種)中에서自己病에適當한것을擇하야곳손쉽게고칠수잇습니다。

어째서싼가 어떤정말듯는藥이

1 藥學博士大谷文昭氏著名醫學하야多數醫學徒의實驗的研究
2 科學的生産設備와最新의機械能力을發揮하는大工場
3 合理化한大量生産과統制配給에依한經費의節減
4 比類의綜合販賣와 [illegible]

◉大學十錢家庭藥 疾病에따라二十種이잇다

●胃腸의疾病에는 大學胃散 大學胃腸錠 大學下痢止 大學下剤
●虫 및 下로는 大學虫下錠
●止痛藥으로는 大學頭痛錠 大學齒痛錠 大學腹痛錠
●感冒藥으로는 大學感冒錠 大學せき止
●夏中藥에는 大學清涼劑
●外用藥에는 大學皮膚病藥 大學外傷藥 大學痔疾藥 大學水虫液 大學メンソールクリーム
●婦人病에는 大學婦人藥
●小兒의病에는 大學奇應丸 大學小兒かぜ藥 大學小兒せき止ドロップ

▲各藥店에잇슴

大學十錢家庭藥

二十種잇다

一個正價十錢 (二十種各一個式詰合函도잇다)

新發賣

大學目藥本舖
大阪 參天堂株式會社 發賣

大衆國史

潛航渡宋 ⑥

湖岩

義天은 구든決心下에서 대양渡宋의機會를 엿보고 잇섯다.

다만 王子가 [illegible] 파如함은 半島史上에 거이 前例업는 일이다.

일즉 三國統一時와 新羅統一時에 高王子가 [illegible]에出使한例는 업는배 아니며 또 高王族이 外國에 求法한例도 업는배 아니나 그러나 王子로서 아모리出家하야서도 渡海冒險함은 이번에 義天이처음이다.

그는 이처럼前例업는 [illegible]的行動을 하게되므로 남모르게 만흔苦悶을 햇스니 先決問題는 임금의許可를 엇는데 잇섯다.

一日은 義天이 從容히 [illegible] 올라서 父王文宗께 그決心을 自白햇더니 文宗이 首肯하시나 종시 許可를 하지안키 때문에 文宗의 在世중에는 實現되지못햇다

그後宣宗때에 [illegible] 請하되 역시允諾을 어찌못햇는데 宣宗도 딱하게 생각하야 [illegible] 모두 大衆의意見으로 [illegible] 不可하다고 反對하엿다. 어때義天은 [illegible] 文宗의 [illegible]과 [illegible]의 入宋은 모두 [illegible]이니 만일安逸만 貪해서 [illegible]을求하기에 힘쓰지안흐면 出家한本意가 어디잇스랴하고 [illegible]하야 [illegible]하매 宣宗도 매우感激한배잇서 [illegible]에 이르럿다.

義天은 비록正式의 許可를엇지못햇스나 [illegible]는 잇스므로 [illegible] 올리치고 마침내 宣宗二年 乙丑(西紀一〇八五) 四月八日밤에 [illegible] 밋宣宗께 올리는 글二通을 써서두고 弟子壽介와함께 [illegible]行하야 京南貞州에가서 宋商의船을 라고 宋國으로潛航하니 어때義天은 卅一의 壯年이다.

宣宗이 듯고 크게놀라서 [illegible] 命하야 뒤를追從하게한바 高麗史宣宗世家에는 「王 [illegible]入宋」이라고 적엇다.

義天은 [illegible]의洪濤를 넘어서 一千五日만에 五月二日에 비로소宋國[illegible]州[illegible](今山東諸城縣地)에 到泊하게 되엇다.

私行하는 王子이나 벌써 所聞이 크게나서 그를 맛기뻐하야 宋의朝野는 떠들게 되엇다.

마중나온 知[illegible]州[illegible]郎范[illegible]에게 義天은 表文을附하야 그中에 來宋의意를 [illegible]한바 宋帝는 主客員外郎蘇注廷으로 迎導하야 同年七月에 汴京에드러가 [illegible]寺에留하다가 [illegible]日에 宋帝가 [illegible]에서 義天을 [illegible] [illegible]를 바덧다.

이때宋은 仁宗의 治世는 어미지내고 英宗의 [illegible]도 [illegible]하야치고 哲宗이 새로即位한지 겨우 四五個月(元祐初)인데 이로부터 新舊兩法黨의軋轢이 차차激甚해지려는 多事의秋이엇다.

그러나 아즉도 [illegible] 중에 司馬光, 王安石(同年卒)가튼 政治家와 [illegible], 蘇軾가튼 學者와文士도 남아잇섯스며 特히蘇軾은 그當時 禮部尙書로 잇섯다.

潛航入宋한 義天은 宋帝가 迎見한[illegible]日에 求法[illegible]를請하야 곳 帝의 欣諾을 어덧다.

學藝

十月創作評 (6)
今日의文學的水準
廉尙涉과 田湖秋

白鐵

以上에서 받은 다른作家들의作品에서 느긴不滿이 廉尙涉氏의『自殺未遂』(三千里)에와서 一掃된것을 느긴다 더구나今日에와서

老大作家의大部分이 따方面으로 흘러간이때에이 作家만이 이만치眞摯스럽고 篤實한태도로文學을 지켜주고 잇는사실은 우리와가튼 後輩에게 여간感動되는일이아니다 이作品은 어떤貧窮한 夫婦家庭生活에 取材를하되 原因不明한 안해의 飮毒事件이中心이 되엿다. 여기서 나는飮毒事件우에 原因不明이란것을 特記한다 그것이이作品의 心理過程을 促進시키는데 重要契機가 되엿기때문이다 사실 이作品은 서두에『길진』(男便)이가 醫師집을 다녀오는場面은 平凡한部分에 屬하는것이요 이作品의本內容에드러간것은『길진』이가 집에 도라와서『안해』의 飮毒한原因과 心理를推測하기시작하는데부터다。그原因이 이것일까 저것일까 推測해가는데서 그들夫婦의 近來의生活相이나오고 飮毒을發見한때의 光景이나오고 그들의夫婦된始初 이야기가 緻密하게再現되며나서는 그原因不明에서 그다음 안해가죽는것을假定하고 풀어나가는

心理過程、그리고 生과死의意味에대하야 안해의 [illegible] 一家見全告白、激動해가는모든 優秀한場面은어데나 흠잡을 곳이업시 緻密하고 克明하고老熟하다。그리하야 그런 여러가지推測과 心理過程을通하야 나종에『길진』의意見과結論이 生에대한 健康한執着에到達한것은 실 이作品의 重要한 眞理가 되는 기쁜일이다。生과死에대하야『길진』이가 確信을가지고 안해를 說服하는場面을 小部分만을소개하면『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할제 지구덩어리가 금시로꺼질할것갓지만 자기자신이외의사람은 자미업는 구경거리로 코우숨을 치고 지나갈뿐이요……』의死의無意味를 말한후에『……죽을힘을가지고 살아봅시다……악착모지게 살고보는게요 살지안흐면 무엇이잇단말이요』하고 生에대한 信念을力說한다。貧窮해서 죽을것이아니라 貧窮하기때문에 더욱『악착모지게』살어야 한다는것이 그의意見이다。그의 人生觀에잇선 사는것만이 자기의 주위에대한 복수까지가된다는것을 맛는자다。여기서 作者가

表面으로는 過激한言辭를 내노치안햇지만 여기主人公이 今日世相에 대한 不平은 이만저만한것이 아니다。그것은前後를通하야 醫師에대한憎惡에도 나타나잇것만 그보다도 特徵的으로나타나잇는것은 다음과가튼곳이다 여기나오는 主人집의 어멈은『길진』네와가튼 貧窮한 사람이면서도 도모지 자기네事情을同情할줄을모르는 매몰한인물로서 主人公이 미워해오던代하야 집主人며누리가 同情하야 시어머니몰래 쌀한되를 내보내는것이잇는데 이든人物에대한 作者의 경계태도는 도리혀어며니를 변명하고 주인집며누리의同情을 心理的으로거절한다『제코가석자면 남의일을 생각할여유가 업는게다。여차하면 사람의 마음이 모지러지는게다。……감정이 말라붓기때문이다。……저이들도 다 먹지를못해 애를쓰기때문이다。당안에서 코를휘저어리고발을도적질해내 보내는것도 배가 불으니까 눈물도나는게구 인져 도쏫는게다』

作者가 주위의인물에대한 구별과증오는그만치 殺驗해서 一分의人情을 許하지안는 苛酷한境地다。同時에 그것은 作者의 寫實的인 精神이 完成된 一場面이라본다。이作品이 讀者를 부여잡는 그악파스러운 리알리티ー는 그런落酷한 場面의 리아리즘에서 오는것이다。

田秋湖氏의『女子도사람인가』(三千里)는 現代的인 短篇小說이라고는 볼수업고 作者의 머리에 떠오르는涵養을 아무努力도 計量도업시 그대로 떠리서敍述해놋는 平凡한 예날이야기다。

그러해에 대해는 [illegible] 하지안흐면서 [illegible] 것은 우[illegible]지만 本來부터『女子도 사람인가』는 [illegible]의 [illegible]는 [illegible]지안코 作品의 [illegible]는 [illegible]한 [illegible]도 이아니다。우리[illegible] [illegible]的인것을 가지고 [illegible]를 [illegible] 하는것은 [illegible]한 [illegible]서 하나로써 [illegible]히 [illegible]에따라서는 [illegible] 이作者가 [illegible]수있는데 이作者가 [illegible]을 보치는사실만으로도 能히 이作者가 어느

程度로 文學을 理解하고 잇는가 推測할것이라고 본다。作中의 內容으로 봐도 다만 主人公이 [illegible]者와 니체의 女子觀을 이야기한다고해서 그것이 곳 高度의 文學을 [illegible]하는것이아니오 무엇보다도 그文學的態度가 現代의 散文小說의 精神을 [illegible]한데잇서야한다。

이밧게 이달創作에는 李無影氏外 몃분이잇스나 모도가 未完成이므로 다음機會에 돌리고 이것으로 이달創作評을 마추거니와 여기서 다시以上에 評해온 諸作에대하야 一一히 採點을하고 時代性을 指摘지안러라도 讀者편에서 作品과 이評文을 血讀해주면 넉넉히 今日우리文學의水準과 그內容을 짐작할수잇스리라고밋는다。(完)

駱山閑話 (下)
(續)(科)(學)(漫)(筆)

高工敎授 安東赫

駱駝山은風水說上京城의外靑龍으로 李朝五百年間 매우 愛護를바덧스나 山勢가 雄壯치도못하고 別로히 奇勝도업는 實로 平平凡凡한 點이 駱駝와 一般이다。普成中學後山 高峰으로부터 南走 文廟 大學病院 徽新學校等을 背上에지고잇는 小丘가 馬頭山이다。馬頭와 駱駝사이에 帶狀地帶는 現在에는 朝鮮學術界의 淵叢이나 過去에는 屠獸及 皮革業者의 部落이엿다。儒敎의 本源成均館近傍 其地名도宗敎坊인 莊嚴 神聖한 地域에 그들이 輕蔑하는 此階級을 孟子의 所謂 君子遠庖廚의 敎旨도 反對하고 何故로 일부러 市外에서 誘致하엿는가? 此理由는 經濟的關係도 考慮할수잇스나 風水上目的이 主다。卽 昌德宮의 主山은 食肉鳥인 鷹이므로 其糧食인 肉이 豊富치안흐면 生氣가 飛散할念慮가 잇스니까 매가 다라나지안토록 고기판을 集合시킨것이라한다。

駱駝山의起點ー惠化門近傍가 駱駝의 엉이라고한다 口는 [illegible]의門 物貨의 [illegible]專門者임으로 此處에 卜居하면 財貨가 流出된다。그까닭에 東小門에는 富豪가 업다고 舊式地官은 말하나 此는 時代錯誤로 現時는口라고 其學說을 改訂할必要가잇다。此로부터 大學運動場까지가 駱駝의頸部이다。山麓의古村인 舊景信坊上栢洞은 大道에서 보기에는大學官舍村인것 가트나 드러가보면 人口數百、鷄鳴犬吠 童稚相戲의 別天地이다。此村의特徵은 兒孩가 만흔것과 日出이 늣은點일것이다 아침太陽의 出現時間이 他所에比하면 半時間以上을릴것이다ー그만큼 栢洞의아침은길다。此는 駱駝第一峰이東方에 屹立한 關係으로 天下의 朝寢嗜好者에게는羨有의 極樂地이다 요즈음이라도 六時頃起床하야도 朝陽을볼수업고 七時頃朝飯後 悠悠히 酒農의 爽味를滿喫할수잇다。此村의 月景도그럴듯한것이다。月出於東上之上과 明月松間照는 混成한 樣式인데 絕景이랄것은 업스나 興趣잇는 好景이다。

駱駝山의背ー其向僂第一峰은 此山의第一得意處이다。卽帝大 高工을 其腹中에藏하고 東部最勝景인 駱山莊은李朝開國以來 名臣 文豪의邸宅이엿고 最近에는 女子醫專의 發祥地가되엿다。그뿐만안이라 古來駱駝의乳房으로 文人墨客의 足跡이 不絶하던 梨花亭藥水도 最近急速히 發展하여 高雅한 文化住宅이 密密히 團聚하엿스며 山上에는 處處에鐵條網을 裝備하야 探勝客은勿論 老童野猫도 近接치못하게 되엿다。

駱駝山의 臀尾部ー忠信町 東大門間은 外觀으로는 駱駝全體中 最劣等이나 經濟上으로는 第一優勢이다。其美觀을減殺하는 最大의 原因은 先天的禿山에잇다。此岩石質說毛症은 駱駝를愛重하는李朝歷代의 頭痛이엿다。그까닭은 駱駝가 日射病에걸려서 地德이 衰弱할을 두려워함이다 그리하여 稀有의林政ー官設定期沙防工事를 力行하여왓스나 아직도 完効를得치못함은 遺憾이다 臀部近來의 大手術은 忠信ー昌信直通路의 竣工이다 今後敦化門ー東大門間의 大道路가 山麓을 回游함에 따라 相當히 重要한交通路가될것이다。

駱駝山의口가 東小門이라면 東大門은 其肛門이다。惠化町近傍에서 財寶를滿喫하고 黃金糞을 昌信町에다가 放出하는 緣由로 此處에는 富豪가만타한다 勿爲牛後나 寧爲駱後라할까 何如間부러운일이다 그러나이러한 橫說竪說이야말로 默默히 堅臥하고잇는 駱駝를 突然히 侮弄하는것으로 或憤怒하야 前進의 快嘯가잇슬지 難測이므로 此程度에서 擱筆코자한다。

學藝小抄

文章社創立

靑年篤志家 金鍊萬氏는 李泰俊氏와協力하야 文藝中心의 書籍出版을目的으로『文章社』를 創設하엿다 處女出版은朴泰遠氏의創作集『小說家仇甫氏의一日』이며 良書美本主義로 李秉岐時調集 金尙鎔詩集 鄭芝溶第一作品集等 續續發刊하리라한다

事務所 府內西小門町一八 文章社

病窓語 (一)
病

咸大勳

나는 病에 等閑하고 따라몸을마구쓰는 사람이다 別로藥으로 病을 고처본일이 업고『고뿔』의 [illegible]에『合辭』처럼 自然療法에依해서 病을 고처왓다 그러기 別로 病院문턱에발을 듸려본일이업다

今年봄 病友朴龍喆君을 눈물속에 보내고나서 病은 初期에 고처야 한다는것을 늣기엇거니와 여름철들면서 痼疾인 神經痛이 甚하여 아춤이면 억개가 쑤시고 팔다리가저리어 일어날수가업슬만큼 甚한程度가 되엿건만 나는 내몸소이런病을 둘고 病院문턱을 찾기는 실혓다 그래서 그저그대로 내버려두엇드니 바람이 맑아지는 가을철들면서 그게 漸漸甚하드니 요즈음은 步行조차 하기어려울만큼 다리가압프고 저리고 쑤시고 뻐뻐하다。

醫師의診斷에 依하면 脚氣라한다 相當히 重病이니 누어잇서 服藥하고 잘靜養하라는것이다。

이제무슨病이란 診斷을 밧고나니 나는이제는 病人이라는생각이 새삼스러히 나는게 어떤지 哀傷的氣分이 떠돌기는한다

『脚氣는 戰爭때 만히 생기는것입니다。世界大戰때도 安形한數의脚氣患者가 發生햇습니다 要컨대 戰爭脚氣라는것이 생기는것입니다』

醫師는 내가 新聞記者라는생각에서 얼른時局과 脚氣를 [illegible]해서話題를 끄낸다。

『어째서 戰爭脚氣가 생기는것입니까?』

나는 反問하엿다。

『戰時엔 잘먹지 못하는때문이지요!』

『아! 그러쿤요!』

생각하니 나도 조그마戰爭을치르고난 사람이다。

◇

새벽에 다리가 저려 잠을깨니 萬家은 죽은듯이 고요하다 [illegible] 나는 [illegible] 열려고도 생각지안코 자리에 누은 그대로 아프다리를 혼자만 [illegible]다。

三十餘年生에 나는 내그림자와가티 운일이업다。나는 別로 高年이란 하지안햇서도 半作에 마음의[illegible] 가히 [illegible]해섯다 머나 나는 [illegible]이기고 참어왓다 그러나 오늘 이새벽에 내눈에서는 아지못하게 뜨거운눈물이 흐르고잇다。이것이 무엇때문에 흐르는눈물이나? 決코나는 [illegible]的인 病的心理에서 나오는 눈물로는 생각지안는다。내 몸이 病든것은 그구엇이 그리 앗가우랴 그구엇이 그러케 괴로우랴! 나는 그것보담도 내몸이 病드러 아픈것을 미루어 朝鮮사람의 一部가 病들고 썩어가는것을 슬퍼하는것이다。그들은 健全하게 正常的으로 자라리고 하지안코 어찌면 그러케도 남을 傷하고 辱하고 歪曲하면서 自己의生의慾望을 滿足하려는고? 社會興亡의자최가 이런病든 心理에서생기지 안햇든가? 생각하면 뼈가 아픈일이다。

只今 世上사람의一群은 健全하게 살려고하지안코 正常的으로 나가려하지안코 辱하고 中傷하는 病子的인氣分으로 나가려는 氣分이 보힌다。이것이 病든 心理가아니냐? 病든생각이아니냐? 한사람이 文化線上에서 일우한다면 거기 뒤지는 말파굴은 그것이 그社會文化에 沮礙하려는것이여늘 이것을 正當히 同化하지 안코 뒤人공론이암서고 誹謗、嫉妬、猜忌의 구부러진 마음으로 毒舌을 弄한다면 이얼마나 社會는작고衰亡의世界로 다름질칠것이냐?

한개의問題를 正當히 認識하고 正當히批判하라 病든心理로 본는버릇을 고치자…이것이 傳統의것은 文化人이가질 態度를希待일것이다

다시 다리가 저리고 쑤신다

그러나 나는 내몸이病드러 아프것보담도 病든心理로 世上을 보는사람의 그病的인 世界가몹시또 배가저리게 내가슴을 아프게한다

新人短篇
夜寒記 (三)

許俊 作
崔根培 畫

『동기간에 못하는짓을 친구간에 할수도잇고 친구간에 못할짓을 부자간에 할수잇는짓이 잇기때문에 허는말이지만 자네도 그만하면 내속을 를 [illegible]지 내가 자네와 그러치안흔새이면 아모 이해상관이 업시 그럼리가업다고』

남은 술기운에도 복그러운생각을 금할길이업서 고개를들어 그를 바로보지못하엿다

『내 언제든지 그놈의 연놈을 [illegible] 들어가서 고든 [illegible] 차내던지고 [illegible] 세간들을 하나어시 박살을내노코 말려란말이야 기맥히지 그놈의 게집년은 더헌다할이야 더해 제가 그래 세간나부랭이나 가지고온것잇스면잇섯지 제가 시집을 위해서 될헤단말인고 재서방하나 위해 바치면 고만인가 그게 다어디서나온 서방인데?……』

여보게 오늘 자네가 그놈의집에가건 의 그놈의집에갓것마저 자네가 속이면 될하잔말인가 그것마자 모르는체하면 될하잔말이야 지금 내헌소리는듯지안어 어름래 훈자 공부대해먹으려던 불노코만단말일세 자네 혼자 그러다가는 아니되네 그래도 그이내 그리고 내가 어디 딱 놓을 다들놈은 이내박게업서 허 나하고 가리허자는건아니지만 내게 맛기라는건아니지만 자네가 내가 그놈의혀이니깐 내한테 그눈치를보여왓다고하는 증거하나세우자는거 아닌가 내가 그러면 다잘하겟거든 이사람아 내가 자네덜어 필 달라는게아니야달라지 안흐면 또 자네가 날 팔세하겟나』

『……』

『자네가 외 그리 나한테까지 몰으는체 할거야 뭣잇나 말일세 이사람 착괴한가 복그러운가 구만두게 구만되요아니 돈잇스면 어디 장가하나 못가서』

『하하하』

남은 비인배에 술이 잘 돌앗든때라 내게 [illegible] 보기위하야 이러케 궁그른목청으로우스며 나졸들고 또 하하 우섯다 홍걸이가 자기동생 혐담을할때에는 하 마음이 험렬하며 도리혀 자나낫지 그러케도 확근거리고 덤구스럽길청도이드니 막상 자기말이나오매 남은 죽지에 무엇인지 마음에 유쾌한것 무엇인지 마음에 적득적득하는 갑볏이 움여나오는것을 깨달엇다 그리고 그는 이 자기의 이상한마음을 자기로서도 확인하기위하야

『창괴한지 북그러운지 잠깐수 [illegible] 눈업는데 지금 내마음이 [illegible] 단히 도고합니다 자 슬을더 주십시오 우리 김부게 한잔 하십시다』

하며 홍걸이가 부어주는 유리컵부에는 일홉주를 콸콸 다 붓기고 또 잔을내어밀엇다

『하하 이사람 내 이렴을 압엇네 자네가 그런사람인줄 내가 아네 사람이 그래야되지 네가 그러케 조흘 하루면 하두 이틀이면 이를 죽여라하고 입을 담을고잇다가도 슬이라도 한잔들어가서 나오게만되면 남이야기 할새업시 자네 혼자 다해버리다지 꼼배퐝이 길선이녀석 그아모술짝에도업는 남의입까닭집 사람꾼하고도 자네 잘 술도가리먹구 이야기도 잘헌다데그려 못할이야기업시 다말하야 우리 오놀밤 그 이끼로 가내가 그길선이 네석만곳해서그리는건 아니겟지 자 그이끼로 가갑입세』

『하하하 그이끼로가요 그이끼로가랍니다』

남은 홍걸이가 내어미는 술독구리에 제잔을갓다대이며 몽롱한눈으로 홍걸이를 처다보앗다

『암 그이끼로가야해 그러치안흐면 자네 내말에 불찬성이야』

『아니 그르다는말이아니라』

남은 도고해지든 자기마음이 갑작이 추저안는것을느끼며 선뜻하는마음으로

『그르다는말이아니라 무슨 이끼로 가란다는말씀입니까 재가 오놀저녁 먹자고아니합니까 제게 술을 작구달리고야 니한니까』

하며 작 남의얼굴은 피비치거처여 들어가는것이엿다

『그래 달래스니 어떠케하란말이야 술이나 처먹지 더다른 소용이업단말인가 다른말이업게어단말이야』

『허허 어디그런말이아니라 그러니깐 홍걸씨가 오놀저녁 제게하시는말이 다 정말인지는 알수엄고 또 거짓말도아니겟지만 거짓말이아니라고 다 참말이 된다니말합니다 허지만 저는 처음부터 그러것을 밧분할말이라말이지 지금 자네하말이라말이지 안하는것만 못늘말이」

홍걸이는 자기도 이러케 빗나가는것이 이상도 괴빼린내나는 젊은것의정신을 호려잡는것인줄알엇고 그러구는 눈웃부라려 남의얼굴을 아래우로 훌터보앗다

新刊紹介

▲朝鮮山林會報 九月號 發行所 朝鮮總督府農林局內 朝鮮山林會 振替京城九六八二番 定價卅錢 送料一錢

▲基督新聞 第七號 發行所 京城府鍾路二丁目九一 基督新聞社 定價一部七錢

▲예수 十月號 發行所 平壤下水口里九〇 예수교회 中央宣傳院 振替京城一一三六五番 定價十二錢

▲世界偉人臨終錄 崔永澤著 發行所 京城府阿峴町二〇三 東盛堂書店 振替京城二一七四三番 定價六十錢

▲聖書朝鮮 十月號 發行所 京城府外崇仁面貞陵里三七八 聖書朝鮮社 振替京城一六五九四番 定價二十錢

▲高麗時報 第九十八號 發行所 開城府北本町三九九番地 高麗時報社 振替京城一四〇九二番 定價十錢

▲聖燈 第六號 發行所 平壤府箕後里私書函三三號 가톨릭朝鮮社 振替京城一五五九七番 定價五錢

▲半島商工 第四十四輯 發行所 京城府昌信町一三一의五〇 半島商工新報社 定價一個月二十錢

▲信仰世界 十月號 發行所 平壤府新陽里一八三의二 게자씨社 振替京城五三三一番 定價十錢

鄕土文化를찾아서
務安·木浦行 (4)
榮山江의古事

李常春

榮山江의 史的考察

靈山江西流爲務安木浦沿江之名勝村塢渡江爲大野直接光州南浦靈岩風氣帽恢物衆地大村墟是布且有江海輸會之利栗光州巨邑名邑이라함은擇里志의記錄이어니와榮山江流域은氣候가 溫和하고 平野가 廣沃하야 物産이 豊富하니 有史以前의 民族移動가튼것은 말하지말고라도 百濟古代의 天惠의 寶庫이엿스며 江海灌漑와 海陸交通上 濟羅以來로 唯一한 關門이엿다 하므로 한참當時에는 三國紛爭의 中心舞臺가되엿스니 後百濟의 興起와 高麗太祖의 戰勝이 곳 그것이다 다시말하면 甄萱이 西南海防戍ー곳羅州等地의 戍卒로 起하야 新羅의 國政이日非하고 百姓이離散하던 때를 타서 가마니 徒衆을 嘯聚하야 「珍州(光州)」를 占據하고 다시 完山州에 灣하야 後百濟王이라 自稱함도 이江畔에서 일어남이어요 王建太祖가 泰封의舟師將軍으로 水軍을 率하고 木浦에 根據하야 빗제로 羅州의 瀕海郡을 遞하고 제로 後百濟를 威脅하야 將來의 三國統一의 大事業이로도 또한 此江의 恩賜이다

甄萱王建의逐角戰

錦江車北 興龍寺前 院隘泉傍에서 일어난 高麗太祖王建과 莊和王后吳氏의 사이에有名한로만쓰는 羅州管內의 일어니 그만두기로하고 務安界流域에서생긴 일만을 적기로한다。

新羅孝恭王十二年(西紀九〇九)은 泰封王의 九年이요 後百濟의 甄萱十八年이다。泰封王弓裔가 羅州를 經略코저하야 王建으로 韓粲海軍大將軍을 灌하여 하여금 羅州에 鎭戍케하니 王建이 舟師를率하고 光州鹽海縣에 陣하야後百濟의 吳越에 遣하는 船舶을 아사도라오니 舟師 다지 王建으로하야금 羅州를 貞州에서修繕하야 二千五百兵을領率하고 光州珍島郡을 攻取하고 羅州浦口에 灌하니 甄萱이 親히 兵을 率하고 戰艦을 木浦로부터 德眞浦에 이르기까지 首尾가 相衛하고 水陸으로 縱橫하야 兵勢가 甚盛하니 泰封諸將이 크게 놀라 憂懼함을 마지아니하엿다。王建이 가로되 諸將은 憂懼치 말라 兵은 和에잇고 衆에있지아니하니라 이에進軍하야 急擊하다가 敵船이 稍却함을 乘하야 바람을 마치 불을 지르니 燒溺死者가 太半이요 斬獲이 五百餘級이라 甄萱이 大敗하야 小舸로 遁歸하다。以上은 高麗史의 記錄이다 石谷面明山里附近에 破軍橋가잇스니 農場貯水池中에 장기여 그다리를 볼수업슴이 遺憾이나 當時의 戰場임을 알나 그戰場가 擴大하엿던가를 推知할만하며 邑誌에 [illegible] 帥王建所過到江東岸無船可渡 [illegible] 軍人告曰 [illegible] 因名其浦 [illegible] 하리라 하므로 보건대 破軍橋라 名稱이 當時의 戰役과 深大한 關係가 잇슴을 알것다。

海外交通

擇里志에 新羅朝唐皆於此郡(靈岩을 가르킴)海上發船乘一日海至黑山島自黑山乘一日海至紅衣島(大黑山島의 西에 잇스니 一名梅加島)又乘一日海至可佳島(小黑山島의 可居島?)艮風三日乃至台州寧波府定海縣(上海의南方一島嶼)風順則一日可至 南宋之通高麗自定海縣海上發船七日可至麗境登陸卽此地也。唐時新羅人浮海入唐如通津要渡而舟船絡繹。崔致遠金可紀崔承祐皆商船入唐이라 하엿스니 入城志에 이른바 外가리 靈岩月出山의西에 鳩林村(靈岩郡西面의 東湖林里) 新羅時代의 名村으로 唐商交通의 浦港地엿스며 榮山江의下流 旺盛하던 商業及木浦附近에는 使船과 商船의 出入에 頻繁하엿스리 것이었다 (續)

秋 지려가는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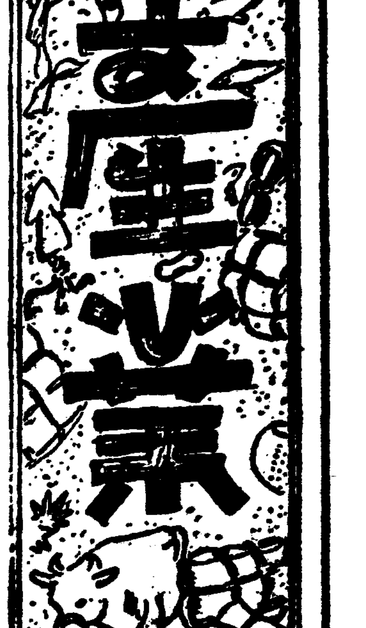
食慾이增進하는가을에 食物의榮養이豐富해지는것은、이機會에健康하게해주려는感謝한自然의마음인것이다。

그러므로 味の素(아지노모도)의美味로운調味로입맛을다시며食卓의가을을골고루禮讚하자。

味の素 (아지노모도)

(登錄商標)

宮內省御用達 味の素本舗 鈴木商店



躍進을거듭하는 朝鮮의 水産貿易 出超도 繼續增加

昭和十二年 水産物의 輸移出入總貿易高는 七千三百三十九萬六千圓인바 輸移出高는 六千九十萬八千圓이오 輸移入高는 四百八十四萬 一千圓으로 六千三百七十一萬 二千圓의 輸移出超過를보이고잇다

그리고 水産貿易額의 朝鮮貿易額全體에 對한比例를 보면如左하다

水産貿易額調(十二年)單位千圓

	輸出	移出	計
水産物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貿易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輸入	移入	計
水産物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水産物總計 [illegible]
朝鮮貿易總額 [illegible]
朝鮮貿易總額에對한水産物의比例 四、九%

이것을다시 前年의 總額五千六百九萬圓에 比하야 一千七百三十萬六千圓의 增加요 輸移出超過高도 前年의 四千六百七十三萬圓에 比하야 一千六百九十八萬二千圓의 著增을보여 朝鮮水産貿易의 好調를 示現하고잇다

水産製品總額

昭和十二年의 水産製品의 總額은 九千三百四十四萬七千三百八十一圓으로서 前年의 七千九百三十七萬七千一百八十三圓에比하야 一千四百七萬九十八圓(一割七分)의激增을示하고잇는데 이것을大別하면

食用品 三千四百十六萬百八十七圓(總額의三割七分)
非食用品 五千九百二十八萬七百九十四圓(六割三分)

로主要한製品을들면如左하다

		總額의
鰮油	[illegible]	(二割八分六厘)
鰮搾粕	[illegible]	(二割七分二厘)
素乾明太	[illegible]	(五分六厘)
魚粉	[illegible]	(四分四厘)
乾海苔	[illegible]	(四分一厘)
煮乾鰮	[illegible]	(三分)
토마토써―진	[illegible]	(一分六厘)
鹽辛明太卵	[illegible]	(一分六厘)
鹽藏고등어	[illegible]	(一分四厘)
煮乾새우	[illegible]	(一分三厘)
鹽藏石首魚	[illegible]	(一分二厘)
鹽乾石首魚	[illegible]	(一分)
鹽藏太刀魚	[illegible]	(一分)

이것을다시 總額에 對하야 道別로들면 咸北의 三千十萬一千二百五十四圓(總額의三割二分)으로首位를占하고 咸南의 二千四百四十八萬一千九百七十五圓(總額의 一割六分)江原道의 一千百八十一萬七千二百三圓(總額의一割二分) 慶南의 八百三萬二千五百七十九圓(總額의八分)等 東海岸의 各道가 그다음을 차지하고 以下全南、慶北、黃海、京畿、平北 京南、忠南、全北의順이다

그리고 最近五個年의 水産製造高는 年年히著增을 繼續하야 十二年의 産額은 始政以來最高의記錄으로 始政當時의 三十五倍에達하야 今後漁業發達과共히 販路의擴張을따라 水産製造業은 益益盛할모양이다

綿共販과 綿絲統制로 家內綿織不能 六萬農家에 影響甚大 (黃海道)

【海州】이번支那事變에 따르는 物資總動員計畫의 影響으로 原料使用禁止乃至制限을 밧게됨에 따라서 黃海道中小工業界全般에 걸처 큰異變을 이르키고잇거니와 그中에서도 農家에副業으로 綿布를짜는 綿織者六萬餘戶의아프로의 生活이 憂慮되고잇다

即黃海道 産業課調査에依하면 道內에서 農家副業으로 綿布를 짜는農家戶數는 在來機綿業者를 비롯하야 毛織機及 改良機綿業者等을합치 總五千百六十一戶로서 그年産額은 百萬圓을 突破하야 窮乏한 農家의 私經濟를 도읍는터로 어道의 家內工業界는 活氣를띄고잇섯는데 어번物資總動員計畫에依하야 黃州、鳳山、載寧、信川、殷栗等地에서産出되는 多量의 綿花는 自家用으로 한집에 五十斤을 使用함에限하야 그나머지는 全部共販에 나아가게되고 또는 綿絲統制로因하야 綿絲가 손에드러오지못하야 加工을 할수업게되여 가을秋收後부터 來年봄까지 進行되여야할 綿織物家內副業은 實로 綿業不能이란 딱한事情에處하여잇다

江原道農會서 苦草共販實施

【春川】江原道農會에서는 今年度부터 새事業으로 苦草共同販賣를 實施하고자 其地에 잇는 專門業者와 價格其他를 折衝中에잇는데 江原全道가아니고 主要産地인 金化郡만 먼저實施할터이며 成績이 良好하면 明年度부터 他郡도 實施하게되리라는바 昨年度總産高는 九十九萬五千貫에 達하얏스며 金化郡만十萬貫을 突破하얏다는바 價格과 規定은 追後發表할터이라한다

保寧種牡牛大市

【保寧】全鮮的으로 有名하게 宣傳되여잇는 種牡牛王國인 保寧地方에는 來十日에 保寧郡畜産組合主催로 大川市場에서 種牡牛大會를 開催한다는바 當日은 忠南各郡에서 購入하려고모다集合하리라한다

京城家畜市場 八月中取引高

京城家畜市場의 八月中取引高는 牛入場 七千三百二十頭 賣買五千七十七頭 價格八十五萬二千四百十一圓 馬入場十二頭 賣買六頭 價格千六百四十五圓 豚入場七百二十四頭 賣買六百五十二頭 價格二萬二千二百七十八圓으로 前年同期에比하야 賣買牛七十二頭 價格二十一萬九千九百四十四圓 馬二頭의千六百四十五圓 豚一頭의 千四十圓이 모두增加하고잇다 그리고 賣買價格의激增은 市價昂騰의結果이라한다

商品市勢 (五日)

▲果實類
苹果(祝)慶北 三貫 [illegible]
同(旭)大邱 [illegible]
同(紅玉)鎭南浦 三貫 [illegible]
同(〃)大邱 [illegible]
桃(白桃)羅州 三貫 [illegible]
바나나臺灣 十貫色付 [illegible]
同(上海)慶山 [illegible]
同(大久保)慶山 [illegible]
葡萄(간)內地 [illegible]
同(마스컷)岡山 [illegible]
溫州蜜柑 伊郞 [illegible]
同(二十世紀)內地 [illegible]
梨(長十郞)河陽 [illegible]
同(洋梨)〃 [illegible]

▲海産物
乾明太新(元山一駄) [illegible]
〃(西湖津)〃 [illegible]
〃(退潮)〃 [illegible]
〃(前津)〃 [illegible]
北海道乾明太 一等 [illegible]
〃小明太 一等 [illegible]
〃(猿面) 一等 [illegible]
〃(若目) 百斤 [illegible]
乾大口(元山) 百斤 [illegible]
〃(北海道) 百斤 [illegible]
乾民魚(암치) 大一手 [illegible]
〃 中 [illegible]
烏賊魚 百斤 [illegible]
鹽蝦漬(새우젓) [illegible]
生明太新入荷壹級 上品 [illegible]
鯖新入荷雌 百尾 [illegible]
生民魚 大、一尾 [illegible]
鹽古同魚 上品 百手 中品 [illegible]

▲菜蔬
松茸 百匁 [illegible]
朝鮮青菜 百菜 [illegible]
玉葱 十貫入 一個 [illegible]
白菜 一貫 [illegible]
土蓮 〃 [illegible]
甘藷 〃 [illegible]
馬鈴薯 〃 [illegible]
玉菜 〃 [illegible]
酢醬石油 [illegible]
長大根 十個 [illegible]
(京城蔬菜會社)

▲農産加工品
麥稈眞田 單變朝鮮産 一反 [illegible]
經木眞田 內地産 [illegible]
杞柳 朝鮮産 一貫 [illegible]
籌草 朝鮮産 [illegible]
漆 朝鮮産 [illegible]
椎茸 內地 [illegible]
椎茸 內地(黑皮) 一斤 [illegible]
楮(白皮) [illegible]
乾繭 內地 十貫 [illegible]
乾繭 朝鮮産 百斤 [illegible]
荏子油 一罐 [illegible]
胡麻油 [illegible]
蓖麻子油 內地 [illegible]
棉實油 木浦 [illegible]
白絞油 內地 [illegible]
乾蓮根 一斗 [illegible]
生松脂 [illegible]
栗 [illegible]
木茸 百匁 [illegible]

▲農藝藥品
硫酸銅 [illegible]
改良石灰 [illegible]
除虫菊 [illegible]
硫黃 [illegible]
結晶硫酸銅 [illegible]
粉末 [illegible]
生石灰 [illegible]

▲穀用叺及繩
叺 指定價 京畿 一枚 天 地 人 [illegible]
群山 [illegible]
忠南 [illegible]
慶北 [illegible]
慶南 [illegible]
榮山浦 [illegible]
賣價 全南 [illegible]
京畿 [illegible]
繩(十五尋白米) [illegible]
穀用繩 [illegible]
荒繩 [illegible]

▲肥料
石灰窒素(九月各渡驛) [illegible]
硫安(九・十月) [illegible]
過石(一五%) [illegible]
燐酸아르미나 [illegible]
安東豆粕 [illegible]
豐年大豆粕 八月限 [illegible]
胡麻油粕 [illegible]
硫化燐安 [illegible]
加里 [illegible]
過燐酸(沛渡) [illegible]

▲家畜飼料
粉末配合 産卵鷄用 [illegible]
同 雛用 [illegible]
同 中雛用 [illegible]
同 三種配合粉餌 [illegible]
成鷄用四種配合粒餌 [illegible]
雛用三種配合粒餌 [illegible]
玉蜀黍 [illegible]
高粱 [illegible]
玄米 [illegible]
屑米 [illegible]
大麥 [illegible]
無砂糠 [illegible]
骨粉 [illegible]
魚粉 [illegible]
가기자 [illegible]
干비 [illegible]
三菱配合中雛用 [illegible]
成鷄用 [illegible]
三井成鷄用 [illegible]
同 中雛用日配 [illegible]
同 初雛生用日配 [illegible]
同 成鷄基礎飼料 [illegible]
同 三種混合粒 [illegible]
同 二種粉飼 [illegible]
同 魚粉(特上) [illegible]

▲穀物
玄米 三等 [illegible]
白米 一等 [illegible]
大麥 [illegible]
小麥 [illegible]
大豆 [illegible]
小豆 [illegible]
粟 [illegible]
胡麻 [illegible]
綠豆 [illegible]
荏子 [illegible]
黍 [illegible]

▲家畜類
鷄卵 [illegible]
生鷄 [illegible]
生豚 [illegible]
生兎 [illegible]
鴨卵 [illegible]
蜂蜜 [illegible]
四季鳥卵 [illegible]
豚毛 [illegible]
羽毛 [illegible]
(朝鮮副業協會)

白雲も い行き憚り 時じくぞ 雪は降りける 語り繼ぎ 言ひ繼ぎ行かむ 不盡の高嶺は (萬葉集)

おゝ淸朗の朝雲に そびゆる冨士の姿こそ 我が日本の誇りなれ (愛國行進曲)

姿ぞ崇き冨士の嶺、その名をとりて輝くは 日本が誇る雜誌『冨士』忠孝と義理と人情を面白く 綾に織りなす雜誌『冨士』讀んで明るい 雜誌『冨士』

朝鮮在住の皆様

漢口が陷ちても非常時は終りません 十年二十年の大覺悟が必要です。長期戰の銃後は強く明るく笑つて護りませう。緊張をゆるめぬ慰安―それには『冨士』が一番です。戰線でも故國の雜誌『冨士』が大人氣です。

何故こんなに評判が良いか

『冨士』―といふ名が懷しいからです。いかにも日本的な、故國の響きがあるからです。

而も面白さは雜誌中第一!!

遠く故鄕を離れて御活躍の皆様、秋蟲すだく新秋の夜一日の勤を終へて燈の下に一家團欒、和やかに繙く一冊の『冨士』に無限の幸福と歡びとが湧いてまいります

陸軍大將 明倫會總裁 田中國重閣下 激賞!!

(前略)…『冨士』の兒玉將軍は大變良く書いてある。二〇三高地攻略のあたりなど涙なしには讀めぬ。日露戰爭の前から大將の部下として親しく接し、戰爭中は參謀としていろ〳〵指圖を受けた私にとつては特に感激深い。『兒玉將軍』は日本人全部に讀んで貰ひたい。しかも頗る平易に感激深く書いてゐるあたり、作者木村君の勞は感謝に値する處である。私は、かくの如き小說こそ、時局下の日本人、特に銃後の青少年諸君には、必讀の好讀物として推薦するのである。

十一月號の素晴しい出來榮え

小說、講談、實話、映畫、落語、漫畫等、滿載の十一月號、その面白さは到底ここへは現はせません。お近くの書店で實物を御覽下さい!!

恋心の十字火

大長篇讀切り 廣津和郎
銃後を守るか弱き女性、その貞操に迫る不埒な男! 之ぞ涙と感激の異色篇です。

噫 飯塚部隊長

山科の心ぞ今日の門出かな……の一句を殘して出征された部隊長飯塚大佐、漢口陷落を前にして天晴れ江南の華と散る。全同胞を心から泣かした壯烈な戰死の場面、之ぞ『冨士』十一月號が誇る特別大讀物、菊月樂峰先生の熱作!!

讀切小說大傑作集

每號讀切小說が一番多いのは斷然『冨士』肩がこらずに面白いと大評判!
▲間諜小說 揚子江の危機 (北村小松)
▲時代小說 妙々鬼の盃 (大倉桃郎)
▲滑稽小說 天高肥馬の恋 (弘木丘太)
▲新作講談 野路の萩餅 (桃川若燕)

▲探偵小說 臆病な男 (甲賀三郎)
▲角道美談 土俵の報恩 (鈴木彥次郎)
▲時代小說 梟首三百級 (長田秀雄)
▲出世講談 一萬石の槍 (大島伯鶴)
▲新作落語 上海みやげ (三遊亭金馬)
▲落語 きやいなう (桂文都)
★漢口脫出記……實妻壽作
★軍馬に泣く……陸軍少將 坂西平八

愛國映画小說
軍國子守唄 大林清
永遠の感激 岩田英文
十字砲火 野澤純

王將 將棋上達の急所 香落ちの攻擊 (花田八段)
▲置碁必勝 碁子の活用 (瀬越七段)
▲映畫界演藝界噂話……

戰線銃後の人氣を湊ふ 問題の軍國偉人小說 兒玉將軍 木村毅

凡ゆる雜誌讀物の中で、一番評判となり問題となつてゐるのが此の一篇である。この小說には血が流れてゐる。乃木將軍も、大山元帥も、或は寺內少尉(現北支方面最高指揮官)も凡て兒玉將軍を圍む人々は生きて描かれてゐる。雜誌小說としてかつて出なかつた傑作である。

日本一の顏ぶれ 連載小說陣の豪華

文壇一流の大家巨豪が筆を揃へての筆陣! 他誌に絕對に見られぬ大壯觀!

現代小說 戀愛算術 菊池寛
時代小說 善魔鬘 吉川英治
現代小說 岩に咲く花 小島政二郎
時代小說 柘榴一角 白井喬二
現代小說 熱情の翼 竹田敏彥
時代小說 女次郎長 川口松太郎
現代小說 曠野の火 加藤武雄
時代小說 三代盜ッ人宿 子母澤寬
現代小說 女人哀歌 中村武羅夫
捕物綺談 國境の女 三角寬

定價 七十錢 送料四錢 東京小石川 大日本雄辯會講談社 (振替東京三九三〇)

住民側態度極强硬 問題는去益惡化

實行委員까지도 一齊排擊

倭舘借地料問題後聞

【慶北支社發】기보=경북칠곡군 왜관면왜관동(漆谷郡倭舘面倭舘洞)시가 팔백여호중의사백여호가 지료인상문제로말미아마 지주와 의견충돌이잇서 드디어 시민대회까지열고 석상에서 실행위원이선정된후 지주측파의 수차의협의로 말미아마 현행지료의약배액을 인상한다는 조건으로 문제는 일단해결된듯하엿스나 사실에잇서서는 실행위원이 협정한 이배인상에도 반대하는 시민이 대부분으로 지주와의 신정한 계약기간이 지난구월삼십일까지에 계약을 체결하지안는자에는 법적수속까지라도 밟바 철거를 요구할것이라는것을 본보에 기보한바이다

그후 이계약기한인 구월삼십일이 지냇스나 계약을체결한사람은 사백명중 불과수십명에지내지안허 장차 지주가 여하한 처치를할것인가하는것이 일반의 주목을끌고잇는데 역시주민측에서는 인상된지료로 신계약을 체결하기는커녕지난 시월일일부터 최주원(崔周元)배인(裵仁)등제씨를필두로하야 지료인상 반대와실행위원 불신임의 반대파시민의동의를어더 가지고 별기한바와가튼 위임장을작성하야 일일이 날인을바다 결속을 하는동시에 약일백오십명의 동의를오는 십일까지에 어더가지고 그중에서 대표를 선정하야 차지문제에대한 소송일체의 행위를 동대표에 위임하고 지주급실행위원에대하야 대항하기로하엿다는바 지난 사일오전중까지에 칠십이명의 날인을 바덧다는바 문제는 아프로 여하히전개될지 주목된다고한다

체분 본넌을 지주에게 승인지키지 안엇기때문에 벌써 이십여건의 차압문제까지 일으키게하야 장차 단첫을 한천에 첩거를 당한 자까지 내게 하엿다는 점이 잇다고 한다

문제에대하야 관계자의말을 종합하야본다면 다음과갓다

羅智綱郡守 談

지료인상문제에대하야는 비상시국하 상방이호양하야 타협점을발견하여 무사히되게되엿슴니다 일부반대자가생기는것은 수만흔사람의일이니 면할수업는문제입니다 당국으로서도 어정에유의하여 선처하겟슴니다 운운

入山實行委員長 談

처음에 현지료의약오배여란는 부당한 지료인상청구가잇섯스나 수차의타협으로말미아마 현행지료의약배액의 인상을지주에승인시켯슴니다 삼십년전의 지료를 시세에따라 다소인상한다는 지주편의요구도 당연한 일이지요 운운

反對派市民某氏 談

시민의이익을대표하라고 선정한실행위원이 도리어 지주의편을들게된결과를내게하고 그럼아니라 현지료보다도 도리어 어삼배나 더인상된지료로 협정을하엿스며 또는구지료처분문제에대하여는 일언반구도 시민에전달하는일이업시 차압까지당하게하엿고 지주측에서는 적체지료의분납을거절하는관계로 일시지불할수도업고하기에 정당애원실을 불신임하는동시 다시대표를 선정하야 결정하고 지주와실행위원에대하야 최후의대책을 짓고저합니다

地主側西村氏 談

상식적으로 생각하드라도 삼십년전지료를 그대로밧고잇슬수도업고하야 인상한것인데 위원들과협의한결과 대략이배표준의인상으로결정된것이매 오늘와서시민의대표가 선정한 지료에까지 반대한다는것은 모순천만입니다 금번반대파중에는 전에선정되엿[illegible]니다 운운

協定案全的反對

委員의無能力을非難

전기와가티 지료인상문제가이러나게되자 지난사월경에 처음 시민대회를열고 석상에서 대표로 입산(入山)경북도의원 박히준(朴憙準)면장 삼본송(三本松)공의 신응필(申應弼) 이상수(李相周) 배병현(裵秉現) 이강진(李鋼鎭)제씨를 실행의원으로추천하야다음파가튼 희망조건을 지주에게교섭하여달라는것을 일임하엿든것이다고한다

一、今年三月以前의 滯地料額滯分의 減額或은分納을地主에게承認시킬것

一、現行地料以上의 引上에反對

이래동위원은 지주와의 타합파 군, 경찰서등 감독관청의조정을 어더가지고 지난구월초에 겨우 협정이 성립하엿기에 지난구월십일부로 하기한바와가튼 지료결정통지서(地料決定通知書)를 각차지인에게 배부하며 실행위원으로서의 책임을 이행하엿든것이라고한다

地料決定通知書

(新地料一錢보러九錢까지)

貴下가 使用하는 釜山西村幸四郞氏所有土地(敷地)의 使用料는 借地人大會에서 左記와가티 決定되엿스니 隨意契約하도록玆에通知함

追而 本協定에 不賛同하는분은 各自任意로 契約하기를添言함

記

一、倭舘面同洞 番地 坪

一、右地料一個月坪當 錢也

一、契約期間昭和十三年九月卅日

昭和十三年九月十日

實行委員一同

이와가티 문제를 처리하기위하야 시민대회가소집되엿고 동석상에서 선정된대표인 실행위원들이 시민의위임을 바더가지고 처리한일이니만치 이실행위원들의 의사표시는 즉 시민전체의 총의로서 일단 실행위원이결정한 지료이면 시민으로서는 반대할수업는문제인데불구하고 어와가티 시민의대다수가 어결정에대하야 반대할뿐아니라 실행위원까지도 불신임하게된 어유가 나변에잇나 이점에 대하야 조사한바에의하면 사건을 이와가티 분규케한책임은모보아 실행위원의 무력함을 알수엇는것이리한다

즉 지료결정통지서면문에 보면『추이 본 협정에 불찬동하는 분은 각지 임의로 계약을 하라』는 문구에서 부터 벌써 화근을 내포하고 잇섯든 것으로 어와가티 각자의 임의로계약을 하라는 조문을 명서하는 이상 벌써 실행 위원의 협정의 필요까지도 업게 되는 것이며 또한 구지료문제에 잇서서도 주민의 기대에 반하야 적

懸案淸州의府制

明年度엔實施斷行?

【忠北支社發】약진 또약진 대도시건설을목표로 진전하는데 청주의 부제실시(府制實施)에 대하여서는 지방인사들의 열렬한 요망에의하야 당국에서도 신중고려중에 잇서든바 이제야 실질적으로 부라고할만한 모-든 조건이 구비되여잇스므로 명년도를 기하야 현안의 부제실시를 단행하고잇다 그래서 이실현을 보는때는 명실공히 충북의웅도로 군림하리라고한다

明太卵販賣問題로

中央會對漁聯對立

咸南關係業者들重視

【咸南支社發】함남도의 특산물인명태어란을 종래어업 조합중앙회(中央會)에서 위탁판매하야오든것을 금년부터 제일수요지 하관(下關)지방만은 함남도어업조합연합회(漁聯)에서 직접판매취급키로되야 지난달 이십오일 어업조합 중앙회에 정식으로통고를하얏다 이에대하야 그후중앙회의 태도를주목하고 잇는바 파연중앙회에서 대행을 계속하겟다고 강경한태도로나와 며출전함남어련에 정식으로 항의를 보내오는동시 함남지사와 식산국(殖産局)에도 가튼이유서(理由書)를보내여 문제를이르키고잇다 중앙회에서 종래대로대행을계속하겟다는 어유는 첫재 각도에서개별적으로 판매하는것보담은 중앙에서 통제를하야외지판매 할리화를 도모함에 가장유리하다는것 둘째로는 제일회대행이 금년사월말까지 끈허젓는데 당연한관계로 금년에도 계속할것을 확신코 오월에 이사(理事)를 하관출장소(下關出張所)에 보내여서 그기구를 확장하는동시 창고가튼설비를 중설하고잇는데 아무통지도업다가 어기(漁期)가 박두한 지난 이십오일에 정식통지를한것은 중앙회의 손해뿐아니라 도의적(道義的)으로 보드래도 부당한일이아니냐하는것이다 그리고 식산국과 도지사에게보낸 어유서의 내용은 각도의 산물을 중앙기관으로서 강력한통제를 하지안흐면 안될것인데 어러케 명태란을 한지방기관에 빼긴다는것은 견책상 모순되는것이오 동시 중앙기관으로서의 금후의사업에 지대한관계를 가지게된다고하는것이다

어며던 중앙회의태도는 극히 강경하야 이번사건을계기로 중앙기관과 지방기관과의 근본적대립은 노골화하게되며 금후귀결은 자못 주목되고잇다

殖産局問題重視

별항 명태란판매의 대행직영문제에대하야 중앙회와 도어업조합연합회간의 알력은 식산국에서 극히 중대시하야 일일이 어련에대하야 이것은 단지국부문제가 아니고 장래수산업계의 협력상 또한 산업수해상 극히중대한것이므로 곳 직영(直營)하다는 격력한 근거와 그내용을 상세하게 보고하라고 명령하얏다

중에 어떠튼 중앙회와 어련간의 사무상 모순도 어는정도까지의 무리한지 이번이것이 분화구(噴火口)가되야 근본적으로 청산(淸算)될것으로 보이며 식산국에서도 이러한의미에잇서서 편중대시하고잇는듯하다

이에대하야 어업조합중앙회의직영을 하지안흐면안된다는 주요한이유를들어보면 중앙으로써통제한다는것은 전선적이나 또는 수개도에 산물이빠처잇슬때에중앙으로서통제판매를 할필요를낫기고잇는것이지 명태어란과가튼것은 함남도에서 구할분포되린이나 산출되고잇는 함남도의특산물이관계로 도모지 중앙에 맛길필요가업다

도한가지로는 명태어란은 부패하기쉬운 고급물로서보통사람으로는 취급키 곤난하며 적어도 수십여년동안 취급한 기술자가아니면은 취급할수업는것이니 지원(地元)인함남도어련에서 이것을 취급하는것이 지당한것이아니냐 더욱 이판매는 작년도부터 제일회로 중앙에맛겨서 하관(下關)지방의 판매를 대행시켯는데 그기간은 금년사월까지 끗나고서그후는 당연히 갱신(更新)할수잇는것이아니냐하는것이다

皮革使用緩和?

裁斷된皮革十一萬足分在庫

平南道서愼重考究中

【平南支社發】구월일일부터 실시된피혁의 사용제한으로인하여 평남도내의 제화영업자 제화직공 피해상황이 막은영향이 업마나커서 역적이인것은 누보한바이어니와 이들은제한한그것은 국가 방책에 순응하여 달게받는바이나 다맛이미 구두를 만들기위하여 잠게배혀노흔가죽(裁斷皮革)에관하여만은 당국의신중한고려와 선처를바라고잇다는의사를 누자피력하고잇스며 수일전에도 업자들은 도당국과 평양부당국에 피혁사정을 설명하고 제한의일회를 진정한바잇섯다

관계방면의 조사에의하면 어미재단한 피혁의수량은 의외로만허 도내피현상의 제고품중에오만족분이잇고 평양부내제화업자가 이만족분 그라도대제화업자가 사만족분 총계십일만족분이잇는바 일표평균유원으로 하여도 육십육만원분으로 그중에곳제조에 착수할수잇도록 구두모형으로 재단되여잇는것과 구월이전에 주문마튼것만은 사용이허가되여잇스나 그것은 극소부분에불과하고 대개는 그냥베만노흔것인데 이것은 다른방면에서 분할수도업고 양도할수도업서그대로 내버려두면 국가로서도그만한 손실이될것이니 이것의사용만은 허가하여달라는것이라한다 도당국으로서도 그요청에무리가업다고생각하나 총독부와관계방면의 의사를조회하고잇는중인데 최근내지에서도 제화가다소완화되는형세에감하야 물자의충분한활용과 업자직공의구제, 수용대중의 편의의의미로서 어것만은 용허될것으로기대된다

正租共販實施

【慶州】금번 경주[illegible]에서는 농촌을 진흥시키고 농가부채갱상을 철저시키기 위하야 [illegible] 미곡정조(正租共同販賣)를 실시[illegible] 지난일부터 [illegible] 시(實施)케되여 [illegible] 그리하야 [illegible] 하엿다한다

木多先生表彰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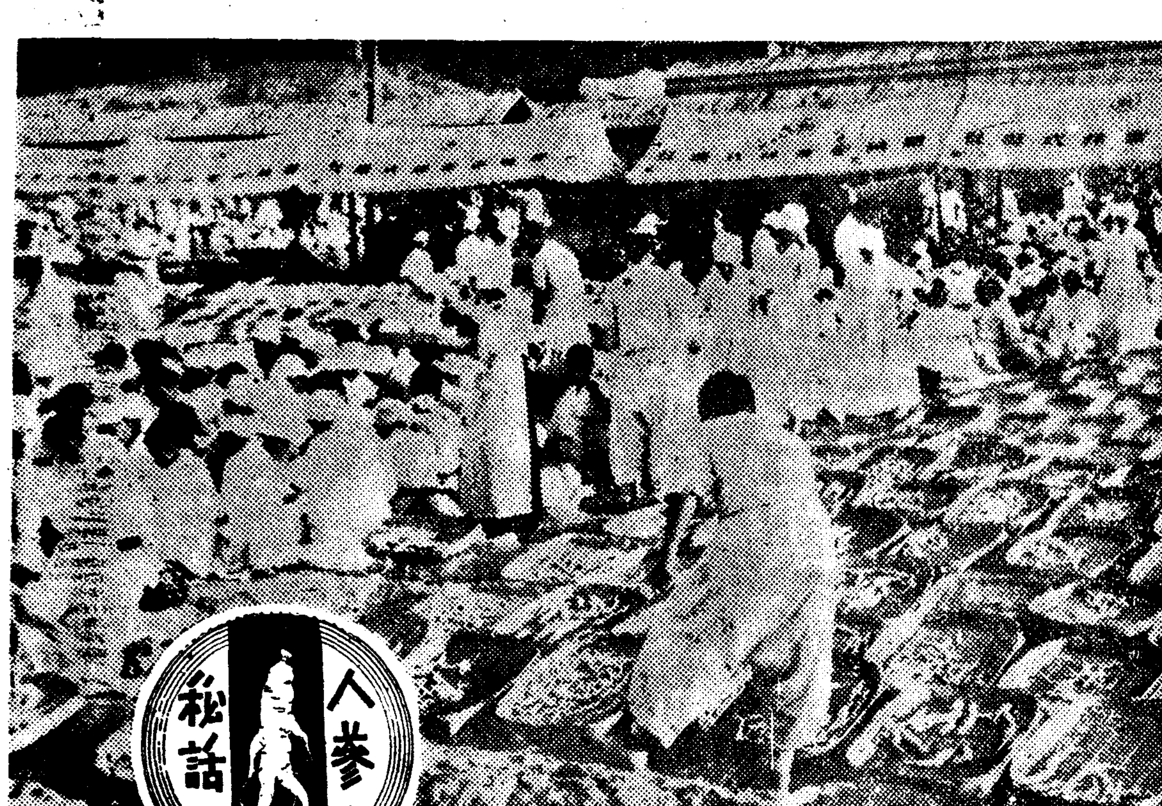
【木浦】목포북교소학교(木浦北橋小學校)의 교육후원회(敎育後援會)와 동창회(同窓會)에는 동교호도 목다정치(木多政治)선생의 근속십주년표창식을 지난삼십일 오후두시에 동교강당에서 거행하엿다한다

有毒버섯中毒?

一家族四名俱歿

平原郡下山堂의慘劇

【肅川】평남평원군동송면군자리(平原郡東松面君子里)산당(山堂)에 거주하는 강학순(康學淳)의 가족다섯명은 지난이일 저녁을 먹고나서부터 장남(一〇)과 이남(三)이 몸에복통을일으켜 고민을하는중 장녀(一八)와 강학순도가치 복통을일으키여 고민을하엿스나 다른부락에서는 약오리가량이나 떠러저잇는산당이라 아무구호도 못하야보고 익일인삼일새벽에 처와아들딸네명이 일시에죽고 최후로발생한 학순만 시체가운데서 신음하고잇는것을 근방을 지나던사람이 발견하고 부락에 도라와서 알리엇스므로 당지 관음의원원장 한찬의씨가 현장에달려가 진찰한결과 음식중독으로 판명은되엿는데 무슨 음식인지 알수업스나 아마 독이잇는 버섯을 먹은듯하다하나 학순이도 중태이므로 알수업다한다 그리하야 학순만은 회생할모양이라고한다



蔘山中心左衝右突

生存競爭面의縮圖

霜葉가티疲勞한몸蔘깍기에는名選手

만여평이나되는 바다와가티 넓은 백삼제조장(白蔘製造場)으로 조수밀리듯 몰려드러온 여공들은 고무신짝을 버서들고 삼섬으로 뛰여가 와-하고 벌떼가티 삼섬에 달려붓는 그들은이제야 버릿술을 잡엇고나 하는기쁨에 의복이 더럽는줄도 몰으고 삼섬을 안으재 땅바닥에 펄석주저 안는다

삼한섬 품갑(삼원오십전이다 그런데 재작년 개성삼업주식회사(開城蔘業株式會社)가 생긴이후 개성부 당국은 동회사에 의뢰하야 날마다 발행하는 "삼표"(蔘票)중 팔할은 부내 각정총대(町總代)에게 분배토록노력해서 정에서는 동정구역내에사는 "카드" 세민층에게 이삼표를 나노하준다 그래 그들에게 버릿술을 잡어주어 겨울작만에 미천을 삼게하는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거지에게 돈한닙던저주는 헐가의 동정파는 다른것인바 공존공영을 도모하는 개성의 미풍일것이다 때문에 적기삼업회사에서도 어십오전씩 공평히벌게하기 위하야 한섬에 열네명씩어 짜도록 맹렬한 감독을하면 또표도 여기에 해당하게 매일 발행한다고한다 그러나 한푼버리라도 더해야겟다는 이들여공은 한명이라도 떼여버릴라고 야단을 치는것이다 즉 한편에선 "삼포를 가젓는데 왜 못꺼게하는냐"고 대들면 한편에선 "여보 삼표가 삼꺼소 사람이 삼까지 늣게와서 무슨 염치로 안즈려텀비는거요"하고그들은 옥신각신 챠웅울하는것이다 그래야결국 일이전의 배당박게더안되는 눈꼽만한 이익아닌가 이것을가지고 살기가 등시장은 팔팔한 살어통관가더이가티 무섭게 팔팔한 생활전선에 죽도(鋸刀)를 몰도 하면서 일전자리『담배』를 피우는것이라 [illegible] 더욱이 밥을더드러 오느라요기도 못한그들── 오직이나공복에 시장하며 오직이나 단잠에 주렷스랴──이술에진날무항못자리이나 영양에주린 활기업는 얼굴들이 삼업(蔘業)가리 초라해뵈다 그러나 오직삼을굽기에만 열중된그들은 모든것을 이즌듯── 남보다한시라도 빨리 한개라도 속히굽으려고 깔등자 조을리는조능이 기계와가티 옴즉인다 그런데 삼을 굽기란그리쉬운일이아니다 진용이 붉게무든삼을 백옥가티 히고정갈스럽게 맨들려면 전체에캐온을 고루고루해야항돌이를 삼다리를 새새마다 부졋한타가업도록 여러번닷가야되며 삼뇌(蔘腦)속에무친흙은 칼로파내야한된다

그래도만일 부정히 굽은것이 남공감독에게 발견되면 다시굽어야되는데 회사사무실에서는이롭으장내가 다둘릴만한 퀀소리를 장치해노코 삼을 정히깍도록 독려한다『××구역남공감독 삼을 정하게깍게하시오 잘깍지한 삼이만히 나옵니다 다리를 잘르는 여공이잇스니 한푼짜지말고 갓시해보시요』

즉 어가는말로 엄중한 주의를 시키는것이다 그러나 원체 삼까기에 명선수가된 개성안악네들은 어가티 갓시가업한곳에서라도 천개씩어나는 한섬삼을 세시간동안이면 다까거치우고 칠여덟시나 어둡시면 돈몽벽어가지고 집으로 도라가 조반을 지여먹는다고한다 어것을보면경말 개성부인놈은 누구나 삼꿈는데 귀신가튼 재조가잇고나─ 감탄할것이나 어처럼 빨리까는데는 또한 수단방법이잇다한다 그것은 한치만앞씨 몸똑히삼을 분배해서 경쟁적으로 깍는것인데 만일 능률이 부족해서 재목을 못드리면 여공이 잇스면 부역을 해주긴하나 구박이 자심하다한다『여보 그건 손으로 깍지안코 발까락으로깍겟소』라는둥『당신은 적게깍겟스니 돈을놓고가면어야되겟소』란둥 실흔소리 [illegible] 논것이라한다 이러케 수고드려 굽은삼은 날품파는 일천오백명의 남녀공의손에 전부운반되여수만이피나되는 사반(沙盤)에 고루루달겨 밧이랑에 일자로 널린다 그러면 장내는 그윽한삼내가 코를찌르다 옥백가튼삼은 태양에반사되여 눈이부시고 여공들의 분결가튼 회삼은 햇벼테결어검애간다 그래서 흰머릿보를 양산삼어 곳숙여쓴그들은 삼을굴르르말리노라고 삿반에담긴삼을 가지고 오종일 자반미질을하는것이다 이러케 하로벼틉 뵌 삼은 빼드러진다러를"총열치"(蔥皮)로 결박을시켜 형체를바로잡은후 다시말린다 그랫다가 이튿날 해각(解脚)을 시켜가지고 약삼수일간 건조하면 대강 원만한놈은 몸매이가려 단단히 마른다고한다 그러면 삼에 고려인삼(高麗人蔘)이란 대지(帶紙)를붓처 가지고 등급편급(片級)을 주린후 저울에달어 검사(檢査)를 마친후 포장에꾸리면 고려인삼이란 조선명산물이되여 상품시장에『데뷰』하는 것인데 전기백삼건조작업이란 햇벼테 말려야 되는것으로구성적이 조코 나쁜것은 기후지배에 좌우되는것이다 만일습기비만맛는날이면삼이 검어지고몸이 쪽구러드러 상품가치를 상실하고 마는것이다 어때문에 백삼제조는 하늘과 동사하는모양이거니와 금년은 삼도개성에 축복바든 명랑한가을이다 (끗)

(사진은깍고는여공과 건조하는 백삼)

(開城特派員 [illegible]記)

照明彈

◇충남삽교(揷橋)지방에서는 파산하는이웃사람을 위하야 금품을모아 유리를 방지하엿다는 인정미담이잇다

◇이끄테럼이구더나도록 일훈천을다루는 이증세태에서는 보기드믄미담

◇부락이라야 단지칠호 그도모두 빈곤한부락이라니 더욱호흥한일

◇평양숭현여학교가 소학교로정식인가가되여 명실함께 반석우에서게되엿다

◇그동안의 공적도 혁혁하거니와 아프로의 기대는더욱막대

祝安岳邑制實施

(無順)

安岳郡廳
安岳警察署
安岳邑事務所
安岳繁榮會
岡田農場
金農場
大林農場
道會議員 元孝燮
道會議員 宋榮璨
金應石
崔昌林
楊山商會
新安材木商會
朝鮮日報社安岳支局

銀狐兎、안고라兎
【參觀歡迎】
廣島縣安佐郡龜山村 龜山農園養兎研究所

檢眼無料 (學生限)
檢眼於本院眼科
檢眼 眼鏡
京城驛前 セブランス病院
セブランス眼鏡部

清血排毒强心劑
海草精
適應症
京城府鍾路六丁目二六七 ホルモン醫化學研究所

中國名藥 强性强 精靈藥
早漏立止
富興公司藥品部

朝鮮特許代理局
電光二四七一番

コデス 百日咳에
먹기조코 效果一等

百補丸
不老長壽 强精回春 更少幸藥
平和堂

肥滿劑
胃腸을튼튼케하고 身體를强壯케한다
小川藥房

戯曲集
書籍購入

慢性 急性 淋疾에 ネオヂリン
各地有名藥店에잇다
製造元 山本回生堂製藥所
朝鮮總代理店 株式會社 木村藥房

輕便洋服收納器と自動開閉洋服覆器
輕便洋服收納器 大特價一個 二圓九十錢
自動開閉洋服覆器 大特價一個 四圓五十錢
名古屋市中區老松町
伊藤利商店
振替名古屋一〇三七番 電話中三九九六番

精力丸
秘方仙藥
補腎·補陽·補陰·消化
主治効能
圖岩合資會社藥品部
京城西大門町一丁目一九

廿年間朝鮮經濟의發展相 ②

產業篇 2

如斯히 朝鮮產業은 併合時代에 展開되어왓는데 既往을 回顧하면 當時交通의 便이 未開이고 地上地下資源의 調査도 未洽이어서 北鮮地方의 豐富한 炭田도 아직開發에 着手하지못하고 多量의 無煙炭도 微粉炭의 缺點만 들어 燃料 또는 動力資源으로서 不適當視되고 水力發電도 極度로 悲觀視되든 等 諸基本調査의 進展은 朝鮮產褐炭의 液化工業原料로서의 適性을 指摘하고 또 內地滿洲產石炭과의 混合使用에 依하야 其使用價値가 만허지고 또 無煙炭의 完全燃燒法及 粘結劑를 發見하야 利用價値를 向上시키고 其他 水力電氣에 對하야는 流域의 堰堤及 貯水池設置의 方法을 案出하야 鴨綠江 二洞川流域地方만으로도 百十二萬키로의 發電이 可能하게되고 昭和三年 赴戰江流域에서 그開發에 着手하고 昭和七年 二十萬키로의 水力發電에 成功하엿다

如斯히 燃料資源으로서 朝鮮產石炭의 利用價値向上及工業動力인 水力電氣의 發生은 從來農業地로서만 생각되고 또農業資源에 依存하야서만 發展하여온 朝鮮產業界에 새로운 電力을 資源으로하는 部門의 工業을 附加하야 新生面을 打開시키고 아직 我國에서는 類例를 보지못한 大規模의 電氣化學工業을 爲始하야 許多한 化學工業을 勃興시키고 다시 紡織 金屬 硬化油 製紙 製粉等의 新興工業이 續續하야 出現하게되엿다。

昭和六七年의 農產物價格의 下落은 一面農業朝鮮을 甚히 壓迫하엿스나 他面昭和六年의 金輸出再禁止及 滿洲國의 出現은 日本을 中心으로하는 滿洲經濟의 工業朝鮮打開의 契機가되어 다시 農產物價의 回復으로 農工併進의 繁榮時代를 마지하게되고 數年前부터 燃料、動力의 二點에잇서서 工業適地의 實을보인 朝鮮은 새로히 內鮮滿不可分의 見地에서 此等을 連絡하는 中樞地帶로서의 地位로進出하고 從前에比하야 一層國防、交通上 重要한 役割을 擔當하게되엇다 其他에잇서서도 金買上價格의 引上과 我國財政經濟의 準戰時體制化에따라 永年不況을 繼續하든 金鑛業은 [illegible] 하야 朝鮮의 地下資源의 開發은 [illegible] 朝鮮의 許多한 [illegible] 特殊重要鑛物의 發見 [illegible] 開發을 誘致하고 朝鮮은 地下資源이 豐富한 地位를 占하게되엿다。

如斯히하야 昭和十一年의 朝鮮產業總生產物價額은 二十三億三千二百餘萬圓에 達하야 大正七年의 一、八倍 昭和二年 [illegible]

產業別生產價額(單位千圓)

種別	大正七年 金額	比率	昭和二年 金額	比率	昭和十一年 金額	比率
農產物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林產物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水產物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鑛產物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工產物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100	[illegible]	100	[illegible]	100

다시 昭和十一年에는 米棉의 豐作을 爲始한 農產物價額의 激減、或은 鑛工業의 躍進、其他 鑛、畜產、林產、水產等의 顯著한 發展을 생각하면 總生產物價額은 再躍廿五、六億圓 或은 其以上에 達하엿슬것이다。

[illegible] 一、[illegible] 이것을 產業別로 [illegible] 하면 [illegible] 最近十年 [illegible] 同時에 그構成의 推移 [illegible] 一般經濟界의 實質的發展에도 著大한 [illegible] 가지고잇는것이 分明케될것이다

이와가티 朝鮮의 產業은 [illegible] 交通、通信、金融의 [illegible] 經濟界는 未曾有의 發展을하게되엿다。即 貿易方面에잇서서는 內鮮貿易의 發展에 加하야 最近의 滿洲、[illegible] 海外市場의 開拓에따라 昭和十二年 總移出入額 [illegible] 交通運輸部內에잇서서는 國有鐵道延長은 昭和十一年度末現在 三千五百七十五粁에 達하고 [illegible] 私設鐵道延長도 一千百卅四粁 [illegible]

及 [illegible] 航空方面에잇서서도 [illegible] 昭和四年 日本航空輸送株式會社의 定期航空開始 [illegible] 昭和六年에는 [illegible] 同十年 [illegible] 十二年以降 [illegible]

朝鮮經濟力一覽表

	大正七年	昭和二年	昭和十一年
朝鮮總生產物價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耕地面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米產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貿易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通常郵便物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國有鐵道收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會社公稱資本金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取扱電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電話架設數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註 國有鐵道收入、通常郵便物取扱高는 各年度 會社公稱資本額、耕地面積은 各年度의 計數)

이와가티하야 今後의 朝鮮은 各種產業이 [illegible] 하게다。

正租共販圍繞코 農會와金組對立

生產者側은農會支持

正租共販을 圍繞하고 農會와 金組의對立에 對해서는 여러가지 論議되여잇스며 現在에도生產者方面으로부터 農會支持說이 擡頭하야 多大한注目을 끌고잇는데 需要者인 精米業者方面에서는 이와反對로 金融의斡旋을 全幅的으로 支持하고 잇는모양이다 即 農會는 金錢貸借의對照가 될수업스므로 賠償責任問題가 發生時에 困難한點이 만흘므로 不安한感이잇고 또取扱이 敏活치못하므로 商機를 노칠때가 만호나 이에反하야 金組는 代金支拂을 現品引受後決濟함은 勿論이오 金融을 受할수가잇서서 取引이 安全하고 確實敏活하므로 農會에서 取扱하는 것보다 언제든지 割高로 去來되고잇다

現在에 朝鮮精米會社가들고잇는 今年度의 實績에 비추어보아 原料蒐集合理化의 一方法으로서 今年新穀期부터는 金組에만 依하야 特殊契約을 締結코저 目下交涉이 進行되여잇는 事實이잇서서 이問題에 對해서는 一刀兩斷으로 可否를 論하기는 매우 困難하므로 其前途는 注目된다

來年度米穀需給

큰念慮는업다고

◇……湯村農林局長 報告

五日 總督府定例局長會議에서湯村農林局長으로부터 念慮되든內地米收穫豫想發表된 今年度의 米收穫豫想보다 만코 持越米도 內地八百五十萬石으로써來年度의 需給은 큰念慮가업서 來年度持越豫想大體 七百三十萬石가량이나 理想持越보다는 百萬石乃至二百萬石이不足하다고來年度米需給에 關하야 報告하얏다

日午後三時부터 本町濟香園에서委員會를 開催하고 總督府에서西本商工課長外三名 米穀課細見事務官外山本穀檢所長、吉池同監督課長等이 列席하엿고 穀協으로부터 齊藤幹事長以下各委員等二十數名이 出席하야

一、木浦의 穀物大會에서 表彰할米界功勞者選定의件

一、明年度豫算大綱에關한件

의二案을 附議第一議案은"鮮米協會"大阪出張所開設의 經費支出이 主體로되므로 鮮米協會評議員會도 併하야 協議가 進行된結果 穀物協會에서는 그間經費約一萬五千圓을 支出하기로決定하고 이에依한 膨脹豫算案의 大綱을決定한後 木浦大會의 表彰者는 內鮮兩地에서 各一名式推薦하기로決定하고 具體的人選에關하야서는 再次 委員會를열고 決定하기로 하엿는데 또其他當面의 重要問題인 叺、畧의圓滑한 配給에關하야 懇談的意見의交換을하고 大阪의 白米問題에關하여서는 最近顯著한 加藤平太郎氏의 實情報告가잇고 이것을 主體로하야 意見의 開陳이잇슨後 午後七時散會하엿다한다

米穀資金

벌써申請

本年의米收穫은 前年보다 一割餘의 減收로 豫想되고잇스나 그래도 平年作以上이고 特히 旱魃地方의中朝鮮地方은 例年보다 出廻가 빠를豫定으로 벌써 米穀資金의申請이 各金融機關에 到來하고잇다 한다

穀協委員會

社團法人朝鮮穀物協會에서는四

鮮銀北支預金

一億圓으로激增

北支의 通貨統一은 聯銀券의普及徹底方針에 基하야 鮮銀券을極力撤收하고잇는데 現在鮮銀券의 北支流通額은 最低二千萬圓만어야 三千萬圓程度로 縮少되어잇다는 觀測이 만타 그리고最近의現象으로서는 軍의支拂이還元하야鮮銀에對한 預金이激增하고잇는것인데 北支各支店의 帳面을合計하면 此等의 預金은一億圓에達하고잇는모양이라한다

貿易振興具現化

餘剩勞力生產化、工藝品獎勵

工藝協會에서 海外輸出指導

貿協研究會에서檢討

朝鮮貿易調査委員會는 四日午後三時부터 朝鮮貿易協會에서開催되엇는데 先般湖南地方의 巡廻貿易座談會에잇서서의 各地方의 要望을 報告하고 이것을 中心으로 貿易振興의 具現化를 圖謀할 意見下에 意見을 交換하엿는데 그中心事項은

一、地方의 餘剩勞力을 生產化할것

二、各地方에 依하야 特色을가진 工藝品을 살리고 輸出向家內工藝品의 生產獎勵를할것

三、中央에 工藝協會 或은 工藝組合가튼 團體를만들고 이機關에依하야 海外의需要調査를하고 有望品의 指導獎勵를할것

四、貿易振興을 爲하야 指定港을 完備하고 地方으로부터의 集荷圓滑을 圖謀하야 船腹不足을緩和할것

五、貿易金融制度의 確立

또同會에서는 其重要性에 鑑하야 愼重한 態度를 가지고이것을 單只座談事項으로하지안코 近近幹事會를 開催하야 右項目의 具體化를 圖謀하기로되엿다한다

四氏商議에出馬

商工協會推薦으로

既報와가티 十一月一日의京城商議改選을압두고 朝鮮人側의多數한出馬說이잇서 混戰이 豫想되는바 京城商工協會의推薦으로

一級=李東善

二級=金圭冕 洪鍾裕 孫弘榮

四氏가立候補키로 決定하고五日에正式屆出하얏다한다

新田氏出馬

京城商議選擧는 時日의切迫을따라 漸次緊張의度를加하고잇는데 四日新田義民氏가 株式街를背景으로하야 一級立候補屆出을하얏스므로 一級은六名의立候補로되엇다

芮東植氏等의 出馬를 傳하엿스나 消息通의 觀測에依하면 本人에게 意思가업고 單純한推測이라는말도잇다 이가티되면 朝鮮人副會頭問題는 지금가태서는 現副會頭 朴永根氏와 李東善氏의競爭으로 되리라한다

一級逐鹿戰

朴、李兩氏?

朝鮮人側立候補로 一級에 高元勳、韓萬熙 二級에 梁在昶、[illegible]

工協決議陳情

朝鮮工業協會에서는 過般의第五回全朝鮮工業者大會에서 決議한事項을中心으로 理事會에서 陳情文作成을 決定한것은 既報와如한데 五日午前十時同會田川副會長及渡谷專務理事는 陳情文

朝鮮製絲

整理難關

妥協?解散?

朝鮮製絲會社整理案은 過般增資總會에서 反對派株主의退席等으로紛糾이고 幾席株主만으로서 總會決議事項을 可決하얏다한은 當時報道한바와갓거니와 其後同社幹部는 京畿道에 이것을報告하고 製絲令關係의 諒解를어더스므로 資金調停法에依한 認可

咸北鰮景氣

一日一隻千三百樽

咸北의 鰮魚는 九月下旬以來 겨우 盛漁期에入하야 百十餘隻의 巾着船은 만흔水揚高를 示하야 一日一隻千二百樽乃至千三百樽에達하고 其中에는 三千樽에 達하는盛況이다 本年의 總水揚高는 昨年以上의 好成績이 豫想되어 咸北各港은 漁景氣에 大活況을呈코잇다

產金事業資材

優先配給要望

一氣上進難!

日本產金振興의 支社設置와同時에 關係方面에서는 產金增產政策의 再檢討와 實情適應의對策樹立을 要望하는소리가 노파젓는데 此際 무엇보다도 問題가되는것은 資金融通보다도 資材의 問題로 產金事業의 重要性에서 關係資材에는 重需工業과가튼 優先配給의길을 열라는 要望이크다

現在의 業界實狀을보면 產金資金의 融通을 바더도 機械入手는 全혀 不可能하다고 하여도 조흔狀況이므로 產金增產의 困難도이點에 原因이잇다 한다 그러므로 現狀대로간다면 產金資金의 消化도 一億九千萬圓이라는것은 到底히 消化困難할것으로보인다 따라서 此際產金機關의 配給圓滑은 急務中의 急務이므로 內地機械工作方面에此點의認識을 가지게하라는 主張이잇다한다

燐寸內鮮協議

燐寸의 內鮮統制問題는 今春申請을 總督府에 提出하얏던바 反對派의 阻止運動으로 目下難關에 걸리어잇다한다 五日 田川常次郎、芮宗錫兩氏는 理財課를訪問하고 經過를 報告하고諒解에 努力하얏다는데 當局의이에對한 態度가 果然어떠할지는 모른다 이것은 故金鋼琬案의八千株問題가 中心인만큼 어떤妥協案이 생기지안는限 金氏側으로서는 八千株를 整理減資케된다면 斷然解散에까지 至할지도 모른다한다

朝鮮內의 組合組織에依하야 解決의機運이잇섯스나 其後具體的協調의 商議를하지못하엿스므로 朝鮮產品의 內地移出도잇서 依然紛糾를거듭하고잇스므로 日本燐寸工業聯合會에서 花岡統制部長、岩田、中根兩理事等 一行이最近 朝鮮에와서 內鮮協調에關한協商을 開始하고잇다 目下內地代表는 關係方面과個別折衝을하고 安協案을講究하고 잇는데 一兩日中에 總督府를介하야 朝鮮內業者와 懇談을할豫定으로 問題는內地側의 提案如何에依할것이나 此際內鮮間의協調는 實現될것으로보인다한다

株式

鈍重

買氣不續

今日의市勢 (五日)

前場買進 今朝 外電은 株式은 反弛、爲替는 少騰以外에 依然 新規材料는 업섯스나 漢口陷落待望의 買進으로 東新三高인 一四五圓三에 鐘紡不變인 一五五圓四에 寄付後 潑行的 買氣가 發現되어 東新六圓三、鐘紡六圓七에 好勢裏大引

後場反弛 後場은 高價買는 警戒되고 賣物도出現하야 東新一低인 一四六圓一、鐘紡八低인 百五十五圓九로 低落寄付後反落大引

商方針果如何

今朝는 買進態勢를取한것가태도보이엿는데 歐洲問題도 落着되고 內政不安도업다하면 戰局進展에따라 買進될것이다 그러나 이것을大勢로서 否定하는者는업슬지라도 漢口攻略까지는 아직 時間이잇는것이 買氣를躊躇케하고잇는原因이다 勿論 徹底的弱氣는 長期戰을豫見하고 長期는 絕對하는方針을 버리지안코잇는모양이어나 그러타고하야 漢口市勢가업다고는할수업겟다 如何튼 一旦人氣의市勢가 出現될것은事實이다 目前上向은 거의確定的이라할수잇스므로 下押만잇스면 買할것이다 今後突發異變만업스면 一押은 잇다하여도 反落은 업을것으로보는側도잇다 遊資도 只今과가티 株式을버리고잇을수도업을것이니 結局目前買方針의時期이라는觀測이잇다

逆日步連續買募

【東京電話】逆日步의 連續과當地長期新東의低價强調로 丸力店의中心의 買進으로 約五百枚의 買進으로景騰

國債區區

【東京電話同盟】五分利債는 利廻關係로보아아직 多少의 買際地가 잇스나價位關係로 一服商狀으로되고 環境關係에 實實閑散하야 二回四分五錢低 佛貨中限五十錢高가 顯著한데不過하엿고 米貨는 鈍轉

期米反落

內地樂觀

前場反落 今朝阪地는 內地米 第一回豫想의 總發表六千四百七十五萬八千七十石의 意外多量입을伴하야 初付三十五圓〇九錢인 十丁反落을始하고 當限은 二圓八十三錢 中限은 二圓三十五錢으로 先限은 三十二圓三十一錢인 亦十丁低로 寄付後 阪地二節〇三錢인 又復六丁低임을따라 三十一錢까지 小弛하더니 阪地四節十錢으로 反高함을伴하야 五節三十九錢으로 結局阪比十一錢을보고 三十五錢에 止場하엿다

後場更落 後場은 三十二圓四十錢인 五丁突高로 始場後 二、三節이모두 三十七錢、五節三十六錢이엇다

內地米作豫想

總發表로反落

去九月二十日 現在의調査인第一回 米作豫想은 昨夕에 總發表를 하엿는데 其間 一般豫測과는 正反對로 六千四百七十五萬八千七十石으로 昨年同期에比하야 百五十六萬石餘의 減少에不過하고 五個年平均米作에 比하면 三分二厘의 增加를 示하야 朝鮮米作 第一回豫想의 意外減少와는 正反對現象으로 結局 內鮮兩地의 總減少가 三百餘萬石인데 朝鮮의 例外減少는 强材로 一昨日 約三十

正米前途一考

昨今濟算市場은 朝鮮米作豫想의 意外減少와 內地米作의 意外增加임을따라 一張一弛의 行動을加하고 因而 保合을繼續하는光景인데 今後의大勢가 또어떠한動機를 基因하야 一波紋을일으킬모양인가? 今月一日부터 經濟警察의 機關이 誕生되어 買占、賣惜兩方을適하야 調査又는 取締를하게되어 昨日 仁川署에서 仁川濟算市場의 當限有力買方을 調査한바잇자 가장高價에 잇는當限이 約四十丁이나 反落하여도 아직 取締할程度의 高價는 아니라할지라도 買方그自身이 먼저謹愼하는關係上 容易히 上放하지못할것갓고 一方으로는 持米側의 賣惜도 警戒하지 아니할수업슬것이므로 產地의 出廻도 旺盛할것을 豫測할수잇다 그런데 此에 一考를要할것은 各郡當局으로부터當該管內의農家에對하야 例年以上의入庫奬勵를하는點으로보아서 低落도 또한期待할수업다 그러면結局 正米의前途는 別波瀾이업시 保勢를支持하지안할가한다 果如何?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當限	◇買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市場의六感

㈱……今朝도 依然한閑散이나 一高로强含되엇은 注目處▲外相은 人選難으로 當分間首相兼任으로한다고 ▲漢口攻略을 압두고 外交가微妙를 揮하여야할 時期 ▲그런데漢口陷落自體보다도 長期建設이一層더 重大事가되엇다 하니 ▲今後의 對支策의 重點主義的方面에 置할지 或은 建設的方面에 置할지?▲이에따라 英佛蘇獨伊의 不可侵[illegible] 說이流布▲如何는 [illegible]

㊣……安的平和가 當分間持續될모양地는 좀이여 豐作에 近하고 米作으로 豫想하던 朝鮮米作은 줄이여 平年作의程度、調查의不充分?事實?▲事實이다하면그다지 悲觀할 餘地가 업슬것이다▲昨年에 比하야內鮮의減少가 三百萬石程度이나 節食에依하야 明年端境期의 需給不安을 업시할수도 잇슬모양▲今月一日부터 經濟警察이 모든物價를 調停하는모양으로 昨朝仁川濟算市場의 當限買方을調査한 關係로 當限은 崩락退又는 利喰으로부터 活潑한强材가 勢는이로부터 瘠然反落市況이 더옥 奇아질모양?

正米

高下不一

京城奔落

內地第一回收穫豫想發表는 豫想外로 增加되어 滿算反落을하엿는데 目前新米出廻期를압두고 內地入荏에는 割高觀이잇고 實質가엽고 品質良好說이나 一般精米側의 低價豫想으로 買盤조차업는때에 所持側의 嫌氣도 傳하야 氣配는 一、二十錢弁落하엿다 ㊤穀良三等三二、一〇 四等三一、一〇 一等白米一四、一五

仁川下走

內地朝鮮이 모두 平年作以上의 收穫豫想發表로 人氣不昇이고 增收悲觀으로 定期의振으로 買方은目前低價가 出現할것을 임想하나 所持側에 低價에는 賣惜强硬으로 實需薄이고 小口浮動米의 賣로十錢低唱이며 十五日積은 二、三十錢低이엇다 ㊤穀良三等三二、三〇 四等三一、一〇 銀坊主三等三二、三〇 四等三二、七〇 多摩錦三等三二、五〇 四一四、一五 ㊨ 一四、一〇 一等白米九〇

釜山昇高

內地의 作況은 意外의 好調로 各地濟算은 一齊히 反落을 演出하엿스나當地는 大邱와함께 아직도古米의市場이라 與地로부터의 廻米稀少로 所持側이 去益强硬態度이고 稍白移出側의 船舶積載關係로 市勢는 十錢高이엇다 ⓚ 穀良三等三二、四〇 四等三二、四〇 一等白米一四、三〇

大邱不動

內地作況은 意外良好함을傳하야 濟算은 一齊

群山强調

新米의 潮流로 內地入荏는 全혀 杜絕狀態이나 朝鮮內의 第一回收穫豫想發表는 意外의減少로 所持側에게 剩餘를 수어强硬하고 目前漸次出盛期를 압두고 大口側은 一旦新穀의 漲落하야 一部小口側의先賣手當으로 市勢는 五錢高로 强含이엇다 ㊤穀良三等三二、四〇 四等三一、一〇 ㊨銀坊主三等三二、九〇 一等白米一四、〇〇

木浦保合

早제 奬勵로 相當한 出廻를 豫想하던 新米의 內地入荏는 照準氣에 局限되엇스나 古米에 對해서는 小口的이나 多少의 去來가잇서서 移出側이 活動을 開始하엿스나 消極的이고 따라서 市中實需도不昇이어서 市勢는 前價同樣으로 保合이엇다 ㊤銀坊主三等 三二、九〇 一等白米一三、七〇

市中은 依然 [illegible] 沈滯를 [illegible] 白米 一三、五〇

今日財界 五日

◆米 (單位錢)	今日後止	比前日後止
仁川期米先限	[illegible]	[illegible]低
大阪期米先限	[illegible]	[illegible]低
㊤三等米一石	[illegible]	[illegible]低
京城白米(一等)	[illegible]	不變
正租(仁川)一等	[illegible]	[illegible]
正米FAQ		[illegible]

◆株 (單位十錢)	今日後止	比前日後止
朝新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鐘紡	[illegible]	[illegible]

◆商品 (先限單位錢)	今日後止	比前日後止
大阪三品	[illegible]	[illegible]
綿絲	[illegible]	[illegible]
人絹	[illegible]	[illegible]
砂糖	[illegible]	[illegible]

海外經濟 四日

銀行券 四日

金利 手形交換

鰯油粕 麥粉

金銀價

對外爲替

正米 / 正租

雜穀

綿絲布

滿洲商況

朝取短期

株式

朝取主要株取組

朝取短期賣買高

東京短期 / 大阪短期 / 大阪長期 / 東京現株 / 東京短期取組

期米

朝取期米 / 大邱期米 / 木浦期米 / 群山期米 / 釜山期米 / 東京期米 / 大阪期米 / 各地期米

綿絲 / 棉花 / 人絹 / 生絲 / 砂糖

京城物價 五日

[illegible]

京城 金益證券 東益 仁川 益夏

株式 期米 玉 京城黃金町 仁川本町 [illegible]

期米 東 仁川 海岸町三丁目 趙俊鎬取引店

公眼科 京城府齋洞町四街里 電話光三五九八 醫學博士 公炳禹